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玉屑寒堆壓
얼음같이 둥근 달 휘영청 밝도다	冰輪迥映徹
여기서 알겠노라 굳건한 그 절개를	從知苦節堅
더욱이 깨달노라 깨끗한 그 빈 마음	轉覺虛心潔

-이황, 「설월죽(雪月竹)」-

모침(茅簷)의 달이 진 제 첫 잠을 얼핏 깨여
반벽 잔등(半壁殘燈)을 의지 삼아 누웠으니
일야(一夜) 매화가 발하니 님이신가 하노라 <제1수>

아마도 이 벗님이 풍운(風韻)이 그지없다
옥골 빙혼(玉骨冰魂)이 냉담도 하는구나
풍편(風便)의 그윽한 향기는 세한 불개(歲寒不改)하구나
<제2수>

천기(天機)도 묘할시고 네 먼저 춘휘(春暉)로다
한 가지 꺾어 내어 이 소식 전(傳)차 하니
님께서 너를 보시고 반기실까 하노라 <제3수>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기년(幾年) 화류(花柳)의 취한 잠 못 깨었는가
두어라 다 각각 정이니 나와 늙자 하노라 <제4수>
-권섭, 「매화(梅花)」-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
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
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
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
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이 어린
다. 소년(少年)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
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
은 어린다.
-윤동주, 「소년(少年)」-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잊지 마렴 한 줌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만 네 일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바로 너로구나
-손택수, 「나무의 꿈」-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둘째딸 인혜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
했다.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긴다.

나는 저 위 댓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설명했
다.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다.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을
아이에게서 빼앗아버렸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세상에 다시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버린 것
이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행구고
푸른 댓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북효근, 「대숲에서 뉘우치다」-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낮같이 들 리도 없어라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마는
위 덩더동성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리 없어라
아아 임아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리 없어라

-지은이 모듬 「사모곡」-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땀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넙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신경림, 「동해 바다」-

아버지는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고
가난으로 평생을 찌르신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어찌다 시에 눈이 뜨고
애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는 부모의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나이 사십에도 궁터를 못 벗은 나를
살 붙이고 살아온 당신마저 비웃지만
서러운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맘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사는 일에 길들지 않은
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도 노엽다
내 사람아, 울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아라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기가 죽기보다 어렵구나
어쩌랴, 바람이 댄 데서 불어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정희성, 「길」-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서정주, 「견우의 노래」-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값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혃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톱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밋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작자미상, 「청산별곡」-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과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秋城) 진호루(鎭湖樓) 빛과 울어 예는 저 시내야
 으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날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니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평도 쉼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 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 너머로
 나즉히 흰구름은 피었다 지고
 두리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색시의
 초록 저고리 당홍치마 자락에
 말 없는 슬픔이 쌓여 오느니——

십리라 푸른 강물은 휘돌아가는데
 밟고 간 자취는 바람이 밀어 가고

방울 소리만 아련히
 꿇질 듯 꿇질 듯 고운 피아리

발 돋우고 눈 들어 아득한 연봉(連峰)을 바라보나
 이미 어진 선비의 그림자는 없어……
 자주 고름에 소리 없이 맺히는 이슬 방울

이제 임이 가시고 가을이 오면
 원앙침(鴛鴦枕) 비인 자리를 무엇으로 가리울꼬

피꼬리 노래하던 실버들 가지
 꺾어서 채찍 삼고 가읍신 님아……
 -조지훈, 「별리(別離)」-

열 여섯 아리따운 아가씨	十五月桂女
남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고야.	羞人無語別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는	歸來掩重門
배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泣向梨花月

-임제, 「무어별(無語別)」-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부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외짝 떠라.
 -윤동주, 「눈감고 간다」-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

-조지훈, 「마음의 태양」-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벼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벼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작자미상, 「가시리」-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지방 우회 치다라 앓아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넛산 바라보니 거머뿔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
에 쥐고 곱비뼉뼉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을 흘깃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값아 벗긴
주추리 삼대 살뜰이도 날 속였고나

모처라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괘라

-작자미상, 사설시조-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호물호물
녹여 버리겠지.

-신동엽, 「봄은」-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촉계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은 껌안은 두 팔을 놓지 않으리
 너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두터운 네 등 위에 내려앉는
 겨울날의 송이눈처럼 너를 포근하게
 감싸 껌안을 수 있다면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네 곁에 누울 수 없는 내 마음조차 더욱
 편안하게 어머니의 무릎잡처럼
 고요하게 나를 누일 수 있다면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으리
 두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질러오는
 한세상의 슬픔을 보리
 네게로 가는 마음의 길이 굽어져
 오늘은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게로 가는 불빛 잃은 발걸음들이
 어두워진 들판을 이리의 목소리로 울부짖을지라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은 껌안은 두 손을 풀지 않으리.

-곽재구, 「희망을 위하여」-

내 벗이 벗인가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괴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리 <제1수>

구름 빛이 깨끗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많노매라
 깨끗하고도 그칠 이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제2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레지니
 아마도 변치 아니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그것으로 하여 아노라 <제4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것을 좋아하노라 <제5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 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6수>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세상에서 모두를 모란꽃 붉은 것만 좋아하여
 온 뜰 가득히 심고 가꾸네.
 누가 거친 이 초야(草野)에
 좋은 꽃 있는 줄 알기나 하겠나?
 어여쁜 모습은 연못 속의 달을 꿰뚫고
 향기는 언덕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귀공자(貴公子) 적어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이네.

世愛牧丹紅 栽培滿遠中(세애목단홍 재배만원중)
 誰知荒草野 易有好花叢(수지황초야 역유호화총)
 色透村塘月 香傳壟樹風(색투촌당월 향전릉수풍)
 地偏公子小 嬌態屬田翁(지편공자소 교태속전옹)

-정습명, 「석죽화(石竹花)」-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曠野)」-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네 숨결 처음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뿔아 네게 흘러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을

먼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뺨어 가려무나

척추를 휘어 접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네 뺨어 가는 끝을 하냥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릅 껍데기 있는 껍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나희덕, 「뿌리에게」-

여명(黎明)의 종이 울린다.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빛은 장마에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生)의 감각(感覺)을 흔들어 주었다.

-김광섭, 「생(生)의 감각」-

어두운 방 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藥)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山茱萸)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聖誕祭)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血液)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청포도」-

가을 뜨락에
씨앗을 받으려니
두 손이 송구하다

모진 비바람에 부대끼며
머연 세월을 살아오신
반백(斑白)의 어머니, 가을 초목이여

나는
바쁘게 바쁘게
거리를 헤매고도

아무
얻은 것 없이
꺼멩게 때만 묻어 돌아왔는데

저리
알차고 여문 황금빛 갱명(生命)을
당신은 마련하셨네

가을 뜨락에
젊음이 역사(役事)한 씨앗을 받으려니
도무지
두 손이 염치없다.

-허영자, 「씨앗을 받으며」-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김남조, 「설일(雪日)」-

위험한 곳에서 아예 가지 말고
의심받을 짓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대로 집에만 있으면
양지바른 뒷마루의 고양이처럼
나는 언제나 귀여운 자식이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힘들 것 무엇이랴 싶었지만
그렇게 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수양이 부족한 탓일까
태풍이 부는 날은
집안에 들어앉아
때묻은 책을 골라내고
옛날 일기장을 불태우고
아무 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
자꾸 찢어버린다
이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짓을 못하게 되어도
누군가 나를 기억할까
어쩌면 그러기 전에 낯선 전화가
울려올지도 모른다
지진이 일어나는 날은
집에도 있는 것도 위험하고
아무 짓을 안 해도 의심받는다
조용히 사는 죄악을 피해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평온하게 살지 마라
무슨 짓인가 해라
아무리 부끄러운 흔적이라도
무엇인가 남겨라

-김광규, 「나의 자식들에게」-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 「승무」-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에 숯불
입춘 때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한겨울 지난 석류 열매를 쪼개어
홍보석 같은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노니,

투명한 옛 생각, 새론 시름의 무지개여,
금붕어처럼 어린 여릿여릿한 느낌이어.

이 열매는 지난해 시월 상달, 우리 둘의
조그만한 이야기가 비릇될 때 익은 것이어니,

작은 아씨야, 가녀린 동무야, 남몰래 깃들인
네 가슴에 줄음 조는 옥토끼가 한 쌍.

옛 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의 손가락, 손가락.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 은(銀)실, 은(銀)실.

아아 석류알을 알알이 비추어 보며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노니.

-정지용, 「석류」-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神)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김현승, 「플라타너스」-

열어 찢히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
낭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누아져.
아아,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르올 화반(花盤)

-충담사, 「찬기파랑가」-

풍상(風霜)이 섰거친 날에 갓 피은 황국화(黃菊花)를
금분(金盆)에 가득 다마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도리(桃李)야 곳시오냥 마라 님의 뜻을 알래라.

-송순의 시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낙화」-

그걸 내 마음이라 부르면 안 되나.
토란잎이 간지럽다고 흔들어대면
궁글궁글 투명한 리듬을 빚어내는 물방울의 둥근 표정
토란잎이 잠자면 그 배꼽 위에
하늘 빛깔로 함께 자고선
토란잎이 물방울을 털어내기도 전에
먼저 알고 흔적 없어지는 그 자취를
그 마음을 사랑이라 부르면 안 되나.

-북효근,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같이는」-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 한 잘못이 땀방석만 하게
동산만 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넒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신경림, 「동해바다」-

홍부 부부(夫婦)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金) 벼 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붙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박재삼, 「홍부 부부상(夫婦像)」-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보리밥 푹나물을 알맞추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의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낙뎃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江山)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갓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윤선도, 「만흥(漫興)」-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非精)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生命)도 망각(忘却)하고
흐르는 구름
머먼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유치환, 「바위」-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
몇 십 년 동안 가진 것,
몇 십 년 동안 누린 것,
몇 십 년 동안 쌓은 것,
그런 것 다 닝마로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과녁이 달려온다.
이윽고 과녁이 피 뿔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정의의 병사여 명령이여!

-고은, 「화살」-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앓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한 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는 방 속을 들여다 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김광균, 「은수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 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소월, 「초혼」-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握手)를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
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事業)에골몰할께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또패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떡섭섭하오

-이상, 「거울」-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 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이육사, 「꽃」-

바위가 그럴 수 있을까
쇠나 플라스틱이 그럴 수 있을까
수많은 손과 수많은 팔
모두 높다랗게 치켜든 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마음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내 하늘을 향하여
꿈쩍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겨울이 지쳐서 피해 간 뒤
온 세상 새싹과 꽃망울들
다투어 울긋불긋 돌아날 때도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다가
초여름 되어서야 갑자기 생각난 듯
윤나는 연록색 이파리들 돌아 내고
별보다 작은 꽃들 무수히 피워 내고
양징스런 열매들 가을내 빨강게 익혀서
돌아가신 조상들 제사상에 올리고
늙어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을까
대추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김광규, 「대추나무」-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이성부, 「누룩」-

두보는 늙도록 나그네 되어
입에 풀칠하느라 온 세상 돌아다녔지.
평생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지만
구렁에서 건져줄 이 없었네.
깊은 가을 장안에선
장마에 지붕 새어 걱정했었지.
고관들 문 앞은 시끌벅적하여
수레와 말들이 모여드는데,
벗조차 찾아오지 않으니
내 집 누추한 걸 알겠구나.
그대는 갈 곳 없는 자위자
십 년 이래 나와 사귄 친구이지.
가난한 골목이라 꺼리지 않고
술병을 들고 찾아와 주면,
깊은 시름 풀 수도 있겠지
다른 사람들이야 탓해 무엇하랴.

杜子老羈旅
糊口彌宇宙
平生飢寒迫
未見溝壑救
窮秋長安城
霖雨愁屋漏
公侯門雜沓
車馬所輻輳
故人尙不來
信覺吾居陋
蹢躅子魏子
是我十年舊
不憚窮巷泥
載酒或相就
庶可解幽憂
餘子安足話

-박은, 「택지에게 화답을 청하며」-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琉璃)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 「유리창I」-

오리치를 놓으려 아배는 눈으로 내려간 지 오래다
오리는 동비탈에 그림자를 떨어뜨리며 날아가고 나는 동말
랭이에서 강아지처럼 아배를 부르며 울다가
시악이 나서는 등 뒤 개울물에 아배의 신짚과 버선목과 대
넙오리를 모다 던져버린다

장날 아침에 앞 행길로 엄지 따러 지나가는 망아지를 내라
고 나는 조르면
아배는 행길을 향해서 크다란 소리로
- 매지야 오나라
- 매지야 오나라

새하러 가는 아배의 지게에 치워 나는 산으로 가며 토끼를
잡으리라고 생각한다
맞구멍 난 토끼굴을 아배와 내가 막아서면 언제나 토끼새
끼는 내 다리 아래로 달아났다
나는 서글퍼서 서글퍼서 울상을 한다

-백석, 「오리 망아지 토끼」-

온갖 것이 남편을 닮은
둘쨌놈이 보고파서
호남선 삼등 열차로
육십 고개 오르듯 숨가쁘게 오셨다.

아들놈의 출판 기념회 때는
푸짐한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아직 안 가라앉은 숨소리 끝에다가
방울방울 맺히는 눈물을
내게만 사알짝 사알짝 보이시더니

타고난 시골 숨씨 한철 만나셨나
산 1번지에 오셔서
이불 빨고 양말 빨고 콧수건 빨고
김치, 동치미, 고추장, 청국장 담그신다.
양념보다 맛있는 사투리로 담그신다.

- 엄니, 엄니, 내려가실 때는요
비행기 태워 드릴게.
- 안 탈란다, 안 탈란다, 값도 비싸고
이북으로 끌고 가면 어쩔게야?

옆에서 며느리는 웃어쌍지만
나는 허전하여 눈물만 나오네.

-조태일, 「어머님 곁에서」-

한 줄기 긴 물굽이가 골짜기 틈 사이로 뿜어나와,
 백 길이나 되는 용추로 쏟아져서 들어가는구나.
 거꾸로 었어지며 날리는 샘이 구름이 아닌가 싶고,
 성난 폭포 가로 드리운 모습 흰 무지개인가.
 우박이 날리고 벼락이 달리다 골짜기에서 멈추고,
 구슬 방아에서 옥이 부서져 맑은 하늘을 뒤덮네.
 구경꾼들아 여산이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다오.
 해동에서는 천마산이 으뜸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一派長川噴壑巖 龍湫百仞水潑潑
 飛泉倒瀉疑雲漠 怒瀑橫垂宛白虹
 雹亂霆馳彌洞府 珠春玉碎徹晴空
 遊人莫道廬山勝 須識天磨冠海東

-황진이, 「박연시(朴淵詩)」-

띠집은 대숲길로 이어져 있고
 가을날 햇살은 곱기도 하다.
 열매가 익어서 축 처진 가지
 참외도 달리지 않은 끝물의 넝쿨.
 나는 벌은 쉴 새 없이 잉잉거리고
 오리는 한가로이 기대어 조네.
 몸과 맘 너무나 고요하구나.
 물러나 살자던 꿈 이루어졌네.

茅齋連竹逕
 秋日艷晴暉
 果熟擎枝重
 瓜寒著蔓稀
 遊蜂飛不定
 閒鴨睡相依
 頗識身心靜
 棲遲願不違

-서거정, 「추풍(秋風)」-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울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강변에서
 내가 사는 작은 오막살이집까지
 이르는 숲길 사이에
 어느 하루
 마음먹고 나무계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밟으면 삐걱이는
 나무 울음소리가 산뺨꾸기 울음
 소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이 계단을 밟고
 내 오막살이집을 찾을 때
 있겠지요
 설령 그때 내게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신이 찾아와
 자 이게 내가 그 동안 목마르게 찾았던 그 물건이야,
 하며 막 붓짐을 푸는 순간이라 해도
 난 당신이 내 나무계단을 밟는 소리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과는 상관없이
 강변 숲길을 따라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곽재구, 「계단」-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城)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 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신석정, 「꽃덤불」-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품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안도현, 「연탄 한 장」-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
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
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 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歸天)」-

산(山)에나 올라서서
바다를 보라
사면(四面)에 백(百) 열리(里), 창파(滄波) 중에
객선(客船)만 둥둥…… 떠나간다.

명산대찰(名山大刹)이 그 어디메나
향안(香案), 향합(香盒), 대그릇에,
석양(夕陽)이 산(山)머리 넘어가고
사면(四面)에 백(百) 열리(里), 물소리라

젊어서 꽃 같은 오늘날로
금의(錦衣)로 환고향(還故鄉)하옵소사.
객선(客船)만 둥둥…… 떠나간다
사면(四面)에 백(百) 열리(里), 나 어찌 갈까

까투리도 산(山) 속에 새끼치고
타관만리(他關萬里)에 와 있노라고
산(山) 중만 바라보며 목메인다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고

들에나 내려오면
쳐다 보라
해님과 달님이 넘나든 고개
구름만 첩첩……떠돌아간다

-김소월, 「집 생각」-

혼자만 와서 불타는 저녁 노을은
내게 있어 한 고통거리다
가슴을 헤치고
혼자만 와서 불타는 저녁 노을을
원망하며 바라본다
노을 속에서는
언제나 우렁찬 만세 소리가 들리고
누님의 얼굴이 환히 비친다
이러한 때
노을은 신이 나서 붉은 물감을
함부로 칠하며
북을 치고 농부들같이 춤을 춘다
한 컵의 냉수를 마시고
오늘도 빈손으로 맞는 나의 저녁 노을
저녁 노을을 쳐다보는 사람은 벌써
도시에 없다.

-김규동, 「노을과 시」-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녘 하산(下山)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文明)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다가운데
내가 몰고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이수익, 「방울소리」-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白茂線)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용악, 「그리움」-

곳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 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돌아와
문 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석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넛거리 떨어져서
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뺏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누가 네게 훔치랬냐 회초리 꾸중 호되네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주인에게 몇땀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오름중자 작은 청렴 내 아니 달갑다네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만 권 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부르랴
밭 두 땀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

-정약용, 「호박넛두리(南瓜歎)」-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오.
해바라기 밭 해바라기들 새에 서서
나도 해바라기가 되려오.

황금(黃金) 사자(獅子) 나룻
오만(傲慢)한 왕후(王后)의 몸매로
진중일 짝소리 없이
삼복(三伏)의 염천(炎天)을 노리고 서서

눈부시어 요요히 호접(胡蝶)도 못오는 백주(白晝)!
한 점 회의(懷疑)도 감상(感傷)도 용납지 않는
그 불령(不逞)스런 의지의 바다의 한 분신(分身)이 되려오.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오.
해바라기 밭으로 가서
해바라기가 되어 섰으려오.

-유치환,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오」-

산이라고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히 엮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 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싯대 개죽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더라도
 칙닝쿨처럼 머루닝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신경림, 「산에 대하여」-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新蕪濁酒如渾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飯罷取枷登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雙肩漆澤翻日赤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呼邪作聲舉趾齊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須叟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了不以心爲形役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何苦去作風塵客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굽다툰고.
 굽을 절(節)이면 눈 속에 푸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원천석의 시조-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삼대 율타리 틈으로 새어 옥수수밭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 이빨 속까지 너무나 기쁜 종달새 새끼 소리가 다 되어 알밭로 킁킁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만, 항시 누에가 실을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 이야기만 무진장 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에는 웬일인지 한 마디도 말을 안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옅은 노을빛처럼 불그레 해져 바다쪽만 멍하니 넘어다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왜 그러시는지 나는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만, 그 분이 돌아가신 인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어부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의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 빠져 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 하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 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서정주, 「해일(海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들고서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 옛날에 옛날에 —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가 여윈 동심(童心)의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이한직, 「낙타」-

다정하게 포개진 접시들.

윤나는 남비.
 방마다 불이 켜지고
 제자리에 놓인
 포근한 의자.
 안락 의자.
 어머니가 계시는 집안에는
 빛나는 유리창과
 차욱차욱 챙겨진 내의.
 새하얀 베갯잇에
 네잎 크로우버.
 아늑하고
 그득했다.

-박목월, 「가정」-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진만큼 손 안 닿은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내 어렸을 적 고향에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영산이었다.

영산은 낮에 보이지 않았다.
산허리까지 잠긴 짙은 안개와 그 위를 덮은 구름으로
하여 영산은 어렴풋이 그 있는 곳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이었다.

영산은 밤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 달빛 속에 또는 별빛 속에 거무스
레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수도 있지만 그 모양이 어찌하며 높
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영산이 불현듯 보고 싶어 고속버스
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이상하게도 영산은 온데간데 없
어지고 이미 낯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산은
이곳에 없다고 한다.

-김광규, 「영산(靈山)」-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푸르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 본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가이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김혜순,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평이 알을 품고
빠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뫼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정지용, 「고향」-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오늘 가을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
함께 서서 바라보던 숲에
잎들이 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고
오늘 낙엽 지는 자리에 남아 그리워하다
내일 이 자리를 뜨고 나면
바람만이 불겠지요.

바람이 부는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 그리워하며
한 세상을 살다가 가겠지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피었던 꽃들이 오늘 이슬고 있습니다.

-도종환, 「가을비」-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森林)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도,
췌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져간 시냇물 소리 갈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육사, 「황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십자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理念)의 뜻대 끝에
애수(哀愁)는 백로처럼 날개를 퍼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유치환, 「깃발」-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일 하나는 담쟁이일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담쟁이」-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떻게 지내시나요?	近來安否問如何
달 밝은 사창(紗窓)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月到紗窓妾恨多
꿈 속의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若使夢魂行有跡
그대 문 앞의 돌길이 모래가 되었을 테지요.	門前石路半成沙

-이육사, 「몽혼(夢魂)」-

사월이 오면
목련은 왜 옛 마당을 찾아와 피는 것일까
어머님 가신 지 스물네해
무던히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잔디밭이 눈을 뜰 때면
어머님은 내 옆에 돌아와 서서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신다

하루 아침엔 날이 흐리고
하늘에서 서러운 비가 나리더니
목련은 한잎두잎 바람에 진다

목련이 지면 어머님은 옛집을 떠나
내년 이맘때나 또 오시겠지
지는 꽃잎을 두 손에 받으며
어머님 가시는 길 울며 가볼까

-김광균, 「다시 목련」-

바람이 거센 밤이면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깨짝 밝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국수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수집 아이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

-이용악, 「다리 위에서」-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시었습니다.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

오늘 저녁 명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 있는 어릴 적 메밀꽃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시고 계셨습니다.

-이성선, 「고향의 천정(天井)」-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빠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不爲浮名役役忙 生涯追逐水雲鄉
平湖春暖烟千里 古岸秋高月一航
紫陌紅塵無夢寐 綠簑青笠共行藏
一聲欸乃舟中趣 那羨人間有玉堂

-설장수, 「어옹(漁翁)」-

집을 치면, 정화수(井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트랙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山神靈)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 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박재삼, 「수정가(水晶歌)」-

심청일 웃겨 보자고 시작한 것이
술래잡기였다.
꿈속에서도 언제나 외로웠던 심청인
오랜만에 제 또래의 애들과
뽕박질을 하였다.

붙잡혔다.
술래가 되었다.
얼마 후 심청은
눈가리개 형질을 맨 채
한동안 서 있었다.
술래잡기하던 애들은 안 뻤다는 듯
심청을 위로해 주고 있었다.

-김종삼, 「술래잡기」-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연해야지.

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詩)를 써도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한여름 폭염. 무더운 거리 나서기 싫어, 냉방이 잘 된 서늘한 사무실에서 시켜 먹는 편만한 점심. 오래지 않아 3층 계단을 힘겹게 올라올 단골 밥집 최씨 아주머니. 나는 안다, 머리에 인 밥과 국, 예닐곱 가지 반찬의 무게, 염천에 굵은 염주 같은 땀 흘리며 오르는 고통의 계단,…… 나는 안다, 머리에 인 밥보다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녀의 삶. 신부전 증을 앓고 있는 남편과 늙은 시어머니의 치매, 아직도 공부 끝나지 않은 어린 사남매. 단골이란 미명으로 믿고 들려준 그녀의 가족사.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한다) 서늘한 사무실에 짐승처럼 간혀, 흰 와이셔츠 넥타이에 목 목인 채 먹는 점심. 먹을수록 후회스러운 식욕.

-정일근, 「점심, 후회스러운」-

우수도
경칩도
머언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기에
호흡은 가빠도 이토록 뜨거운가?

손에 손을 잡고
불에 불을 문지르고
의지한 채 체온을 길이 간직하고픈 것은
꽃피는 봄을 기다리는 탓이리라.

산은
산대로 첩첩 쌓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 가듯이

나무는 나무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우리도 우리끼리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신석정, 「대춘부(待春賦)」-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안도현, 「간격」-

논밭 갈아 김 매고 베짖방이 대넘쳐 신들매고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메고 무림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섶을 베고 잘라서 지계에 짚어 지팡이 받
쳐 놓고 썸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비우고 곰방대를 툭툭 떨어
앞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조율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꼬 하더라.

-작자미상, 사설시조-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下馬問人居
아낙네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婦女出門看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坐客茅屋下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 오네.	爲我具飯餐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냐 하니	丈夫亦何在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扶犁朝上山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山田苦難耕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日晚猶未還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四顧絕無隣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鷄犬依層巒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中林多猛虎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	採藿不盈盤
슬프다 외딴 살이 어찌 좋으리	哀此獨何好
힘하고 힘한 산골짜에서…….	崎嶇山谷間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樂哉彼平土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	欲往畏縣官

-김창협, 「산민(山民)」-

늦은 봄 떠나는 벗 보내고 오니	暮春去送人歸
눈앞 가득 고운 풀에 맘이 아프네.	滿目傷心芳草
훗날 조각배 돌아오거든	扁舟他日歸來
뱃사공이여 알려 주쇼.	爲報長年三老
안개 낀 강 아스라이 천 리를 흐르고	煙水渺瀰千里
마음은 버들개지인 양 어지러이 날리네.	心如狂絮亂飛
하물며 꽃 지는 이 계절에	何況落花時節
사람 보내고 연연하지 않겠나.	送人能不依依
노을은 햇빛 비쳐 붉게 흐르고	殘霞映日流紅
먼 강물은 하늘만큼 푸르네.	遠水兼天鬪碧
강가의 버드나무 수없는 푸른 실은	江頭柳無限絲
내 마음 얽매어 머물게 하네.	未解絆留歸客

-이규보, 「모춘강상송인후유감(暮春江上送人後有感)」-

나모도 돌도 바히 엽슨 피에 매게 쫓친 불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一千石) 시른 대중강
 (大中缸)이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돛대도 짓고 농총도 끈코
 키도 빠지고 바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거 자자진 날의,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고 사면(四面)이 거머어둑 천지 적
 막 가치노을 떠난대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
 과,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가을하리오.

-작자미상, 사설시조-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리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

-김소월, 「먼 후일」-

달님 이지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멀리멀리 비취 주소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 데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이나 놓으십시오
 내 가는 데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井邑詞)」-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견게 하는 그이들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벽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짙이고 짙어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이들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이성부, 「산길에서」-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윷목

-기형도, 「엄마 걱정」-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금
즉하여 풀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모쳐라 날랜 나일세망정 어혈(瘀血) 질 뻔 하괘라

-작자미상, 사설시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움직인다는 ……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
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
과이거니……

-신석정, 「들길에 서서」-

그래 살아 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 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풀
둥근 공이 되어

움지 최선의 풀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케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雙排目) 걸
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 없으
라

-작자미상, 사설시조-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놓을처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지덤불 쭉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서정주, 「무등을 보며」-

세상은 또 한 고비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몸부림치다 와 닿는
둘째놈 애린 손끝이 천 근으로 아프다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뉘고 이불을 다독여준다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메꿔 밥 비는 재주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나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바람 소리 사정없고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 - 박영한 님의 제(題)를
빌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순이, 벌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아래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지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송수권, 「까치밥」-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풀」-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 부르니
눈 맞으며 세상 밖을 돌아가는 사람들뿐
등에 업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갈 길은 먼데 함박눈은 내리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눈사람을 기다리며 노랠 부르네
세상 모든 기다림의 노랠 부르네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가는 사람들을
노래가 길이 되어 앞질러 가고
돌아올 길 없는 눈길 앞질러 가고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랠 부르며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랠 부르며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었네

-정호승, 「맹인 부부 가수」-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내 틈으로 들어오느냐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단이 여단이 암돌찌귀 수톨찌귀 배
목걸새 똑딱 박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병풍
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데굴데굴 마느냐 네 어내 틈으로 들
어오느냐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작자미상-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불구 이 내 잠아 검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 너는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노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불청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난고니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되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빠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더문더문 질긋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술 피우는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작자미상, 「잠노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혈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혈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앓아줄 수 없는 지금
어쩌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뿐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내가 견딘다
그리하여 언 땅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엮어주고 체온을 나누며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라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북효근, 「겨울 숲」-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이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위하나이다.

〈제1수〉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에 양지성효(養志誠孝)를 증자같이 하리이다.

〈제2수〉

만균을 늘려 내어 길게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북당에 학발쌍친을 더디 늙게 하리이다.

〈제3수〉

군봉 모이신 데 외까마귀 들어오니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갈다마는
두어라 봉황도 비조와 류시니 모셔 논들 어떠하리.

〈제4수〉

-박인로, 「조홍시가(早紅柿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같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저킵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김소월, 「가는 길」-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문정희, 「비망록(備忘錄)」-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히
불어 오라

복사꽃 살구꽃
화안한 속에
구름처럼 꽃구름 꽃구름
화안한 속에

꽃가루 흩뿌리어
마을마다 진한
꽃 향기 풍기여라

치위와 주림에 시달리어
한겨우내- 움치고 떨며
살어 나온 사람들……

서러운 얘기
서러운 얘기
다아
까맣게 잊고

꽃향에 꽃향에
취하여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
쏟어지게 하여라

나비처럼
쏟어지게 하여라

-박두진, 「꽃구름 속에」-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곽재구, 「새벽 편지」-

노랗게 숙 차오르는 배추밭머리에 서서
생각하노니
옛날에 옛날에는 배추꼬리도 맛이 있었나니 눈 덮인 움 속
에서 찾아냈었나니

하얗게 밀둥 드러내는 무밭머리에 서서
생각하노니
옛날에 옛날에는 무꼬리 밭에 채였었나니 아작아작 먹었었
나니

달삭한 맛

산모퉁을 굽이도는 기적 소리에 떠나간 사람 얼굴도 스쳐
가나니 설핏 비껴가나니 풀무 불빛에 싸여 달덩이처럼

오늘은

이마 조아리며 빌고 싶은 고향

-박용래, 「밭머리에 서서」-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어느덧 산국화 냄새 나는 팔순 할머니
팔십평생 행여 풀여치 하나 밟을세라
안절부절 허리 굽혀 살아오신 할머니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대밭을 바라본다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가꾸신 대밭
대밭이 죽으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고
가는 해마다 거름주고 오는 해마다 거름주며
죽순 하나 뽑지 못하게 하시던 할아버님
할아버님의 흰 옷자락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을 바라본다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김준태, 「강강술래」-

공명(功名)도 잊었노라 부귀(富貴)도 잊었노라
세상 번우(煩憂)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내 몸을 내마져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라.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흘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라.

헛글고 싯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김광옥, 「율리유곡」-

겨우내
햇볕 한 모금 들지 않던
뒤꼍 추녀 밑 마늘광 위으로
봄비는 나리어

얼굴에 까만 먼지 쓰고
눈 감고 누워 세월 모르고 살아온
저 잔설(殘雪)을 일깨운다.

잔설은
투덜거리며 일어나
때묻은 이불 개켜 옆구리에 끼더니
슬쩍 어디론가 사라진다.

잔설이 떠나고 없는
추녀 밑 깨진 기왓장 틈으로
종일 빗물이 스민다.

-이동순, 「봄비」-

들가에 떨어져 나가앉은 뗏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애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각기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김소월, 「나의 집」-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 있는 마당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솟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축축했다.
— 저어,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 글썄,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께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우.
그라제마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 짓든 데라서
맴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세 놓으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빈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세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나희덕, 「방을 얻다」-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 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찢기
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
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볼
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
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
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
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씩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틔우고 꽃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박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산비알에 돌밭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잎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늙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세월에 굵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하다가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
 -신경림, 「우리동네 느티나무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준관, 「구부러진 길」-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이성부, 「벼」-

방(房) 안에 켜 있는 축(燭)불 놀과 이별하였기에
 걸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저 축(燭)불 날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이개-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窓) 밖에 석로(石路)라도 닳으리라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이명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업시
 고히고히 보내들이우리다.

영변엔 약산
 그 진달래꽃을
 한아름 짜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뿌려노흔 그솥을
 고히나 즈러밧고 가지웁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흘니우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 『개벽』」-

겨우 소한(小寒)을 넘어 선 뜰에 내려
매화나무 가지 아래 서서 보니
치운 공중에 가만히 뻗고 있는
그 가녀린 가지마다에
어느새 어린 꽃봉들이 수없이 생겨 있다.

밤이며는 내가 새벽마다 일어 앉아
싸늘한 책장을 손끝으로 넘기며 느끼는
엿저녁 그 모색(暮色) 속 한천(寒天) 아래 까무러치듯
외로이도 얼어붙던 먼 산산(山山)들!
그러면서도 무엔지
아련하고도 따뜻이 마음 땀 돌던 느낌을
이 가지들도 느껴 왔는지 모른다.

오늘도 표연히 집을 나서
어디고 먼 바닷가에나 가서
그 바다의 양양(洋洋)함을 바라보고
홀로이 생각에 젖었다 오골음!
이런 수렁한 심정도 어찌면
저 가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

매운 바람결이 몰려 달을 적마다
어린 꽃봉들을 머금은 가녀린 가지는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고
살래살래 타일르듯 흔들거린다.

-유치환, 「매화나무」-

튼튼한 것 속에서 틈은 태어난다
서로 힘차게 껴안고 굳은 철근과 시멘트 속에도
숨쉬고 돌아다닐 길은 있었던 것이다
길고 가는 한 줄 선 속에 빛을 우겨넣고
버텨겨 허리를 펴는 틈
미세하게 벌어진 그 선의 폭을
수십 년의 시간, 분, 초로 나누어본다
아아, 얼마나 느리게 그 틈은 벌어져온 것인가
그 느리고 질긴 힘은
핏줄처럼 건물의 속속들이 뻗어 있다
서울, 거대한 빌딩의 정글 속에서
다리 없이 벽과 벽을 타고 다니며 우글거리고 있다
지금은 화려한 타일과 벽지로 덮여 있지만
새 타일과 벽지가 필요하거든
뜯어보라 두 눈으로 확인해보라
순식간에 구석구석으로 달아나 숨을
그러나 어느 구석에서든 천연덕스러운 꼬리가 보일
틈! 틈, 틈, 틈, 틈틈틈틈틈.....
어떤 철벽이라도 비집고 들어가 사는 이 틈의 정체는
사실은 한 줄기 가냘픈 허공이다
하릴없이 구름이나 풀잎의 등을 밀어주던
나약한 힘이다
이 힘이 어디에든 스미듯 들어가면
튼튼한 것들은 모두 금이 간다 갈라진다 무너진다
튼튼한 것들은 결국 없어지고
가냘프고 나약한 허공만 끝끝내 남는다

-김기택, 「틈」-

나무하러 가자 이히후후 예헤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고
지게 목발 못 면하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모에 풍경 달고
만석록을 누리건만 이런 팔자 어이하리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남의 집도 못 면하고
죽자 하니 청춘이요 사자 하니 고생이라
세상사 사라진들 치마 짧은 계집 있나
다박머리 자식 있나 광 넓은 논이 있나
사래 긴 밭이 있나 버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떡신도 짝이 있는데
챙이 같은 내 팔자야 자탄한들 무엇하리
한탄한들 무엇하나 청천에 저 기력아
너도 또한 입을 잃고 입 찾아서 가는 길가
더런 놈의 팔자로다 이놈의 팔자로다
언제나 면하고 오늘도 이 집을 안 지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 술 줄 놈이 있나
가자 이히후후

-작자미상, 「초부가(樵夫歌)」-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웠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곽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김소월, 「길」-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려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

식은 감자알 갑작거리며 평상에 엎드려 산수 숙제를 하던,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
는 줄 알아. 열한 식구 때끼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대냐고, 귀밝은 할아버지는 땅밑에서 감자알 크는 소리
들린다고 호뭇해하셨지만 엄마 난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뿌리 끝에 땡글땡글한 어지럼증을 매달고 식구들
이 밥상머리를 지키다 하나둘 숟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발엔 숟가락 꽂히지 않는다.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궁그는,
꽃 진 자리엔 얼씬도 하지 않는,
열한 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

-김선우, 「감자 먹는 사람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벧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러라는 것이

-나희덕, 「땅끝」-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 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다만 무릎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 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타령도 듣고
다음 날엔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엘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짜구려 하숙에서 마늘 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경림,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남은 다 자는 밤에 너 어이 홀로 씨야
옥장(玉帳) 깊은 곳에 자는 님 생각는고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라

-송이-

그립고 그리워도 볼 수가 없어
마음은 바람에 나부끼는 종이 연 같아라
뚝자리라면 말아 두고 돌이라면 굴러 낼 수 있으련만
이 마음의 응어리 어느 때나 고칠까
그리운 사람은 멀리 하늘 모퉁이에 있는데
구름 뜬 하늘 아래 늘어진 푸른 버들
아득한 시름은 끝이 없어라
홀로 앉아 공후를 타니
공후는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
다 타도록 비단 적삼 젖는 줄도 몰랐네
원컨대 쌍쌍이 나는 새가 되어서
임 향한 창 앞에 서 있고자
원컨대 밝은 달이 되어
임의 창문 휘장 뚫어 비취 들고자
슬픈 노래 잠 못 드는 밤 어찌 이리 긴고
꿈속에서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하였네
기나긴 그리움에 공연히 애만 끊노라

-성현, 「장상사(長相思)」-

모래는 모두가
작지만 고집센 한 알이다
그러나 한 알만의 모래는 없다
한알한알이 무수하게 모여서 모래다
오죽이나 외로워 그랬을까 하고 보면
웬걸 모여서는 서로가
모른 체 등을 돌리고 있는 모래
모래를 서로 손잡게 하려고
신이 모래밭에 하루종일 봄비를 뿌린다
하지만 뿌리면 뿌리는 그대로
모래 밑으로 모조리 새나가 버리는 봄비
자비로운 신은 또 민들레 꽃씨를
모래밭에 한 움큼 날려 보낸다
싹트는 법이 없다
더 이상은 손을 쓸 도리가 없군
구제불능이야
신은 드디어 포기를 결정한다
신의 눈 밖에 난 영원한 갈증!

-이형기, 「모래」-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
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계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떨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
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문태준, 「가재미」-

꿇도리 저 꿇도리 어여쁘다 저 꿇도리
어인 꿇도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
(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리 네어 사창(紗窓) 여윈 잠
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작자미상, 「꿇도리 저 꿇도리~」-

백성들의 어려움이여, 백성들의 어려움이여
 흉년 들어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구나
 나는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있어도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없구나
 백성들의 괴로움이여, 백성들의 괴로움이여
 날이 추워 내가 이불이 없을 때
 저들은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있어도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없구나
 원컨대, 잠시라도 소인배의 마음을 돌려서
 군자의 생각을 가져 보게나
 군자의 귀를 빌려
 백성의 말을 들어 보게나
 백성은 할 말 있어도 임금은 알지 못하니
 오늘 백성들은 모두 살 곳을 잃었구나
 궁궐에서는 매양 백성을 걱정하는 조서 내리는데
 지방 관청에 전해져서는 한갓 헛된 종이 조각
 서울에서 관리를 보내 백성의 고통을 물으려
 역마로 날마다 삼백 리를 달려도
 백성들은 문턱에 나설 힘도 없어
 어느 겨를에 마음속 일을 말이나 하겠소
 비록 한 고을에 한 서울 관리 온다고 해도
 서울 관리는 귀가 없고 백성은 입이 없다네
 급회양 같은 착한 관리를 불러다가
 아직 죽지 않은 백성을 구해봄만 못하리라

蒼生難蒼生難 年貧爾無食 我有濟爾心 而無濟爾力
 蒼生苦蒼生苦 天寒爾無衾 彼有濟爾力 而無濟爾心
 願回小人腹 暫爲君子慮 暫借君子耳 試聽小民語
 小民有語君不知 今歲蒼生皆失所
 北闕雖下憂民詔 州縣傳看一虛紙
 特遣京官問民瘼 駟騎日馳三百里
 吾民無力出門限 何暇面陳心內事
 縱使一郡一京官 京官無耳民無口
 不如喚起汲淮陽 未死子遺猶可救

-어무적, 「유민탄(流民歎)」-

내 이미 백구 잇고 백구도 나를 잇네
 둘이 서로 잇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웅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꼬
 봄은 앞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시대 제 맞이라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려문
 네 귀를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루어 달 띄우네
 맑으면 갓끈 씻고 흐리거든 발 씻으리
 어찌타 세상 사람 청탁(淸濁) 있는 줄 모르는고

-이별,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 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구성은 산을 넘은 육천 리요

물 맞아 함빡히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삭주구성은 산 너머
 먼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며 아니합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밤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구성은 산 너머
 먼 육천 리

-김소월, 「삭주구성(朔州龜城)」-

봄은 푸른 수레를 타고 바다 건너 먼 산맥을 넘어서 어느 삼림에 투숙(投宿)을 했다가는 기어코 언덕길을 돌아오리라고 한다

아침에도 나리꽃같이 흰 안개가 걷기 전부터 사람들은 언덕길에서 만날 때마다 푸른 봄이 오리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했건만 헤어질 때마다 전설같이 믿을 수 없는 제 자신들의 슬픈 이야기에 목메어 울었다

그 중 어떤 젊은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지구에서 아주 자취를 감추었으리라고 단념을 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어느 아득한 성좌로 멀리 떠나버렸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봄은 어느 성좌에서 다시 오지 않나 하고 모조리 전설 같은 이야기를 부질없이 소곤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옥같이 흰 백매(白梅)가 핀다기로서니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야 있겠느냐고 제각기 만나는 대로 심장을 앓았다

푸른 계절을 잃어버린
 이 몹쓸 지구에 서서
 도시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신석정,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백두산에 도착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흰 자작나무 사이로
 외롭게 걸려 있던 낫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잣까마귀들이 떼지어 날던 하늘 사이로
 서서히 함박눈은 퍼붓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멀리 백두폭포를 뒤로 하고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눈 속에 핀 흰 두견화를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씩 백두산이 되어갔다
 눈보라가 장백송 나뭇가지를 후려 꺾는 풍구(風口)에서
 마침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올라갈수록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내려갈수록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을 오르며
 우리들은 다시 천지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정호승, 「백두산을 오르며」-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일조(一朝) 낭군(郎君)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絶)해야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性眞)이는 석교상(石橋上)
 에서 팔선녀 다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래 동덩 치고 째른 목
 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일점(四更一點)에 날 새라고 꼬피요 울거든 오라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여 아니 오던고
 너란 죽어 황하수(黃河水) 되고 날란 죽어 도대선(都大船)되
 야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동덩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 태 명휘(明暉)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양명휘(揚明暉)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테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고

-작자미상, 「황계사」-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참빛으로 이 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 시절에

새벽 서리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이고 장에 가시고
 고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아홉 살
 내가 두 살 터울 동생 손 잡고 신작로를 따라 마중갔었다. 이
 십 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두어 번 다녔지만 꼬박꼬
 박 걸어오셨으므로 가다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다.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
 아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 어머니는 그날 따라 버스로 오시
 고

아,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최두석, 「담양장」-

해는 출렁거리는 빛으로
내려오며
제 빛에 겨워 흘러 넘친다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다, 비유의 아버지답게
초록의 샘답게
하늘의 푸른 넓이를 다해 웃는다
하늘 전체가 그냥
기쁨이며 신전이다

해여,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그 공기에
취해 찰랑대는 자기의 즙에 겨운,
공중에 뜬 물인
나뭇가지들의 초록 기쁨이여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넌지시 주고받으며
싱글거린다

오 이 향기
싱글거리는 흙의 향기
내 코에 댄 갈대기와도 같은
하늘의, 향기
나무들의 향기!

-정현중, 「초록 기쁨 - 봄숲에서」-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는 엽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러질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아 오늘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김영랑, 「오월」-

태산이 눕다 하되 하늘 아래 피히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업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피만 눕다 하더라.

-양사언의 시조-

乍晴還雨雨還晴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이니,
天道猶然況世情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
정이라.
譽我便是還毀我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逃名却自爲求名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
함이라.
花門花謝春何管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고.
雲去雲來山不爭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
라.
寄語世人須記認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
取歡無處得平生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
움을 얻을 것인가를.

-김시습, 「사청사우(乍晴乍雨)」-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나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우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
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든 것
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
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고만 발자욱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
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
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얗 내 마음에
는 눈이 나리리라.

-윤동주, 「눈 오는 지도」-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다음 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 임종의 이마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애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 걸요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베갯모에
수실로 뜨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예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지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
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중철, 「만나는 법」-

초당 늦은 날에 깊이 든 잠 겨우 깨어
대창문을 바빠 열고 작은 뜰에 방황하니
시내 위의 버들잎은 봄바람을 먼저 얻어
위성 땅 아침 비에 원객(遠客)의 근심이라
수풀 아래 뼈꼭새는 계절을 먼저 알아
태평세월 들일에는 농부를 재촉한다
아아 내 일이야 잠을 깨어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가 허랑(虛浪)하다
공명(功名)이 때가 늦어 백발은 귀밀이요
산업(產業)에 피가 없어 초가집 몇 칸이라
백화주 두세 잔에 산수에 정이 들어
홍도 벽도(紅桃碧桃) 난발(爛發)한데 지팡이 짚고 들어가니
산은 첩첩 기이하고 물은 청청 깨끗하다
안개 걷어 구름 되니 남산 서산 백운(白雲)이요
구름 걷혀 안개 되니 계산 안개 봉이 높다
앉아 보고 서서 보니 별천지가 여기로다
때 없는 두 귀밀을 돌시내에 다시 씻고
탁영대(濯纓臺) 잠깐 쉬고 세심대(洗心臺)로 올라가니
풍대(風臺)의 맑은 바람 심신이 시원하고
월사(月榭)의 밝은 달은 맑은 의미 일반이라
- 남석하, 「초당춘수곡(草堂春睡曲)」 -

아배는 타관 가서 오지 않고 산비탈 외따른 집에 엄매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 뒤로는 어니
산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같이 쿵
쿵거리며 다닌다

날기명석을 저간다는 닭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뒷산 어니메도 조마구네 나라
가 있어서 오줌 누러 깨는 재밤 머리말의 문살에 대인 유리
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
보는 때 나는 이불 속에 자즈러붙어 숨도 쉬지 못한다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고무가 고개 너머
큰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
지의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같은 때
나는 아룻목의 샷귀를 들고 쇠든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밝혀
먹고 은행여름을 인두불에 구워도 먹고 그러다는 이불 우에
서 광대넘이를 뒤이고 또 누워 굴면서 엄매에게 웃목에 두
른 평풍의 새빨간 천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무더러는
밝는 날 멀리는 못 난다는 피추라기를 잡아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내일같이 명절날인 밤은 부엌에 쪼뚝하니 불이 밝고 솔뚜
껍이 놀으며 구수한 내음새 곰국이 무르끓고 방안에서는 일
가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퍼며 조개송편에 달송편
에 전두기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팔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
한다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선달에 냇물날이 들어서 냇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췌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냇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
을 든든히 너기며 엄매와 나는 양궁 우에 떡돌 우에 곱새담
우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폰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으로 냇물눈 약눈을 받는다

이 눈세기물을 냇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
두고는 해를 묵여가며 고뿔이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감피기를
얹어도 먹을 물이다

- 백석, 「고야(古夜)」 -

겨울산에 가면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도타운 귀,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거무스레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신열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잘릴 때 쏟은 톱밥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맷혀 빛나고,
 그 옆으로는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것들이
 뿌리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나희덕, 「겨울산에 가면」-

1
 양철로 만든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부쉬지는 얼음 소리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
 호수는 한포기 화려한 꽃밭이 되고

여윈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氷雪)이 눈부신 빛을 하다.

2
 낡은 고향의 허리띠같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고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노을은
 나 어린 향수(鄉愁)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3
 앙상한 잠목림 사이로
 한낮이 겨운 하늘이 투명한 기폭(旗幅)을 떨어뜨리고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한마리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나부끼며
 서글픈 얼굴을 하고 눈독 위에 서 있다.

-김광균, 「성호부근」-

갈아놓은 논고랑에 고인 물을 본다.
 마음이 행복해진다.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햇살이 번지고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잠기고
 나의 얼굴이 들어 있다.
 늘 홀로이던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 모두가 아름답다.
 그 안에 나는 거꾸로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본래의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다.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 있다.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내가
 저 세상에 건너가 서 있거나 한 듯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

-이성선, 「논두렁에 서서」-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송순-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
 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한용운, 「수(繡)의 비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들고
웁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느,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정지용, 「춘설(春雪)」-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텐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고재중, 「첫사랑」-

1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2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네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3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내가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김춘수, 「분수」-

잘 빳어진 찻잔을 들여다본다
수없이 실금이 가 있다
마르면서 굳어지면서 스스로 제 살을 조금씩 벌려
그 사이에 뜨거운 불김을 불어 넣었으리라
얽히고설킨 그 틈 사이에 바람이 드나들고
비로소 찻잔은 그 숨결로 살아 있어
그 틈, 사이들이 실뿌리처럼 찻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게다
틈 사이가 고울수록 깨어져도 찻잔은 날을 세우지 않는다
미리 제 몸에 새겨놓은 돌아갈 길,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틈, 사이가
찻물을 새지 않게 한단다
잘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 벽도
양생되면서 제 몸에 수 없는 실핏줄을 긋는다
그 미세한 틈, 사이가
차가운 눈바람과 비를 막아준다고 한다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다
끊임없이 서로의 중심에 다가서지만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던 그대와 나
그 틈, 사이까지가 하나였음을 알겠구나
하나 되어 깊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실금의 틈, 사이를 허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 노여움의 불길과 내 슬픔의 눈물이 스며들 수 있게
서로의 속살에 실뿌리 깊숙이 내리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북효근, 「틈, 사이」-

도연히 취한 후에 선판(船板)치며 즐기더니
 서북간 일진광풍 홀연히 일어나니
 태산 같은 높은 물결 하늘에 닿았구나
 주중인(舟中人)이 황망하여 조수(措手)할 길 있을쏘냐
 나는 새 아니니 어찌 살기 바라리오
 밤은 점점 깊어가고 풍량은 더욱 심하다
 만경창파(萬頃蒼波) 일엽선(一葉船)이 끝없이 떠나가니
 슬프다 무슨 죄로 하직 없는 이별인가
 일생일사(一生一死)는 자고로 예사로대
 어복(魚腹) 속에 영장(永葬)함은 이 아니 원통한가
 부모처자 우는 거동 생각하면 목이 멘다
 죽기는 자분(自分)하나 기갈(飢渴)은 무슨 일인가
 명천(明天)이 감동하시어 대우(大醵)를 내리심에
 돛대 안고 우러러서 낙수(落水)를 먹었으니
 갈(渴)한 것은 진정하나 입에서 성에 나네
 밝으면 낮이런가 어두우면 밤이런가
 오륙일 지낸 후에 원원(遠遠)히 바라보니
 동남간 삼대도(三大島)가 은은히 솟아났다
 일본인가 짐작하여 선구(船具)를 보집(補緝)하니
 무슨 일로 바람 형세 또다시 변하는가
 그 섬을 벗어나니 다시 못 보리로다
 대양(大洋)에 표탕(飄盪)하여 물결에 부침(浮沈)하니
 하늘을 부르짖어 죽기만 바라더니
 선판(船板)을 치는 소리 귓가에 들리거늘
 물결인가 의심하여 황급히 나가 보니
 자 넘는 검은 고기 배 안에 뛰어든다
 생으로 토막 잘라 팔인(八人)이 나눠 먹고
 경각에 끊을 목숨 힘입어 보전하니
 황천(皇天)이 주신 겐가 해신(海神)의 도움인가
 이 고기 아니었으면 우리 어찌 살았으리
 어느덧 시월이라 초사일 아침 날에
 큰 섬이 앞에 뵈나 인력(人力)으로 어찌 하리
 자연히 바람결에 섬 아래 닿았구나

-이방익, 「표해가(漂海歌)」-

사개 틀린 고풍(古風)의 뒷마루에 없는 듯이 앉아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옮겨오고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식이
 보시시 깔리우면

나는 내 하나인 외론 벗
 가냘픈 내 그림자와
 말없이 몸짓 없이 서로 맞대고 있으려니
 이 밤 옮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김영랑, 「사개 틀린 고풍의 뒷마루에」-

우수 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오늘까지 연 닷새 간을
 고향, 내 새벽 산 여울을
 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욱 소리 하날
 듣고 지내었더니
 그 새끼발가락 하날
 가만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더니
 나 실로 정결한 말씀만 고를 수 있었더니
 그가 왔다.
 진술 속곳을 갈아입고
 그가 왔다.
 이른 아침,
 난 그를 위해 닭장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달걀
 두 알을 집어내었다.
 경칩이 멀지 않다 하였다.

-정진규, 「따뜻한 달걀」-

가마를 급히 타고 술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
 녹양에 우는 피꼬리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펴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뒤서리 걸힌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누렇게 익은 벼는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졌는가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문혔거늘
 조물주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벌였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승경(勝景)이로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설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썰려노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라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설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라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
 노래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고 또 켜게 하고 방울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굶혔다가 젖혔다가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냐

-송순, 「면앙정가」-

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셋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께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작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 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 골목에서 자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자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아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른데도 자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함민복,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박용래, 「울타리 밖」-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멀다
 먼저 든 햇빛에
 개나리 보실보실 피어서
 처음 노란 빛에 정이 들었다.

차츰 지붕이 겨울 짐을 부릴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距離)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돌아온다.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산은 산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견례(相見禮)를 이룬다.

꽃은 짧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
 노루 꼬리만큼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다락에서 묵은 빨래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나와
 산골짜기에서 겨울 산 뼈를 씻으며
 줄줄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김광섭, 「봄」-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들성들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 아래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허형만, 「겨울 들판을 거닐며」-

너를 꿈꾼 밤
 문득 인기척 소리에 잠이
 깨었다.
 문턱에 귀대고 엇들을 땀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깃 소리.
 아아, 네가 왔구나.
 산 넘고 물 건너
 누런 해 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나직이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 오냐,
 안쓰런 마음은 만릿길인데
 황망히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후두둑,
 댕얼 끝에 방울지는
 봄 비 소리.

-오세영, 「너의 목소리」-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촉촉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
 다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눈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녁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실을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손택수, 「밥물 눈금」-

줄레줄레 도야지 새끼들이 간다.
 귀밀이 재릿재릿하니 별이 담복 따사로운 거리다.

 잿더미에 까치 오르고 아이 오르고 아지랑이 오르고
 해바라기 하기 좋을 벚꼭간 마당에
 벗짚같이 누우란 사람들이 둘러서서
 어느 눈 오신 날 눈을 츠고 생긴 듯한 말다툼 소리도 누우라니

 소는 기르매 지고 조은다.

 아 모도들 따사로히 가난하니

-백석, 「삼천포」-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내일의 별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들이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김현승, 「지각(知覺)」-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구두통에 새벽별 가득 따 담고
별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하루내 길바닥에 홀로 앉아서
사람들 발아래 짓밟혀 나뒹구는
지난밤 별똥별도 주워서 닦고
하늘 숨은 낮별도 꺼내 닦는다.
이 세상 별빛 한 손에 모아
어머니 아침마다 거울을 닦듯
구두 닦는 사람들 목숨 닦는다.
목숨 위에 내려앉은 먼지 닦는다.
저녁별 가득 든 구두통 메고
겨울밤 골목길 걸어서 가면
사람들은 하나씩 별을 안고 돌아가고
발자국에 고이는 별바람 소리 따라
가랑잎 같은 손만 굴러서 간다.

-정호승, 「구두 닦는 소년」-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귀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윤선도, 「전회요(遣懷謠)」-

진주(晉州) 장터 생어물(魚物)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晉州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어머니의 고추밭 에 나가면
연한 손에 매운 물 든다 저리 가 있거라.
나는 비탈진 황토밭 근방에서
멤멤 고추잠자리 었다.
어머니 어깨 위에 내리는
글썽거리는 햇살이었다.
아들 넷만 나란히 보기 좋게 키워내셨으니
짓무른 벌레 먹은 구멍 뚫린 고추 보고
누가 도현네 올 고추 농사 잘 안 되었네요 해도
가을에 가 봐야 알지요 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나는 빨리 어른 이 되고 싶었다.

-안도현, 「고추밭」-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감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감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색깔이 다 모여 있는 물감상자를 앞에 놓고 진달래꽃빛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진달래꽃물을, 연초록 잎새들처럼 가슴에 싱그러운 그리움을 담고 싶은 이들에게는 초록꽃물을, 시집갈 나이의 처녀들에게는 쪽두리 모양의 노란 국화꽃물을 꿈틀 나뉘듯 물감봉지에 싸서 주었습니다. 눈빛처럼 흰 맑고 고운 마음씨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해종일 물감장사를 하다보면 콧물마저도 무지개빛이 되는 많은 날들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동저고리 입히는 마음으로 나를 키우기 위해 물감장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 지상에 아니 계십니다. 물감상자 속의 물감들이 놓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나에게 물감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색깔들만 가슴에 물들이라고 물감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강우식, 「어머니의 물감상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行人)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신동엽, 「산에 언덕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김소월, 「산유화」-

관(棺)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容納)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좌르르 하직(下直)했다.
그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兄)님!
불렀다.
오오냐. 나는 전신(全身)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특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박목월, 「하관(下棺)」-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넓은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 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네
꿨었다 이어 오는 가느단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김동환, 「산 너머 남촌(南村)에는」-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훑날리느뇨.

처마끝에 호롱불 야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女人)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김광균, 「설야(雪夜)」-

오누이들의
정다운 얘기에
어느 집 질화로엔
밤알이 토실토실 익겠다.

콩기름 불
실고추처럼 가늘게 피어나던 밤

파묻은 불씨를 헤쳐
앞담배를 피우며

“고놈, 눈동자가 초롱 같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
바깥엔 연방 눈이 내리고
오늘밤처럼 눈이 내리고.

다만 이제 나 홀로
눈을 밟으며 간다.

오우버 자락에
구수한 할머니의 옛 얘기를 싸고,
어린 시절의 그 눈을 밟으며 간다.

오누이들의
정다운 얘기에
어느 집 질화로엔
밤알이 토실토실 익겠다.

-김용호, 「눈 오는 밤에」-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겨울 강 강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에 내 몸이 으스스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강물은 흘러가 흐느끼지 않아도
끝끝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쓰러지면 일어서는 갈대가 되어
청산이 소리치면 소리쳐 울리

-정호승, 「겨울 강에서」-

黃雀何方來去飛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一年農事不曾知 일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鰥翁獨自耕耘了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땀는데
耗盡田中禾黍爲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이제현, 「사리화(沙里花)」-

활짝 갠 날씨에 물색이 산뜻한데
즐거운 놀이에 온갖 회포와 시름 다 잊는다.
지는 해를 머금은 강물은 황금 빛이요
바람결에 훑날리는 벼들숨은 흰 눈이어라.
고향 강산은 천 리 밖에 먼데
한 두루미 술로 담소를 나누니 만 가지 인연도 부질없네.
감흥이 일어 새로운 시 한 수 쓰려 하나
붓 들어 적으려 하니 호기(豪氣) 모자라 부끄러우이.

-정지상, 「춘일(春日)」-

태양(太陽)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城)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신석정, 「꽃덤불」-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을 받아 번쩍이네.
응혜야, 소리 내며 밭 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난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고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

-정약용, 「타맥행(打麥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땀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박용철, 「떠나가는 배」-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 쉬고
파릇한 미나리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김종길, 「설날 아침에」-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
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김영랑, 「독을 차고」-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 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삼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
놓여 있다.

이러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
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앞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지발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접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김수영,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 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
아란 바람 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
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 오르는 아침 날 빛이 빨질한
은결을 도도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르도르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 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 이 지나도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나리고
숲은 말없이 잠드느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가 어지러울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김광섭, 「마음」-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빛(碑)돌은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
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
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
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청년 화가(靑年畫家) L을 위하여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
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머서 밤새
도룩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먼 얼굴 고운 해야 솟아
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
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
이 좋아라. 훗훗훗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
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
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
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박두진, 「해」-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없는 꽃잎으로 살어 여러 했던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청산 깊은 절에 울어 끓인
종소리는 아마 이숫하여이다.
경경히 밝은 달은
빈 절을 덧없이 비초이고
뒤안 이속한 꽃가지에
잠 못 이루는 두견조차
저리 슬피 우는다

아아, 어이 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낼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나는 꿈꾸었노라.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몸은 설워라.
허물 많은 사바의 몸이여
현세의 어지러운 번뇌가
짐승처럼 내 몸을 물고
오오, 형체, 이 아리따움과
내 보석 수풀 속에
비밀한 뱀이 꿈어리는 형역(形役)의
끝없는 갈림길이여.

구름으로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는 꽃잎도 띄워 둥둥 떠내려가겠다.
부서지는 주옥의 여울이여!
너울너울 흘러서 창해에
미치기 전에야 꿩일 줄이 있으리.
저절로 흘러가는 널조차 부러워라.

-신석초, 「바라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깊은 삼림대(森林帶)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새끼 마음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산비탈 난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평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오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또윽 또윽 따지 않으렵니까?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북채를 잡아라 오래비여,
송화가루 하염없이 내 콧가를 스치는
남도 황톳길 터벅터벅 걸어
소리채에 올랐다.

산마루마다 걸린 붉은 노을은
누구의 노래더냐 누구의 불타는 마음이더냐
어서 북채를 잡아라
눈뜨고는 차마 여기 이를 수 없어
오래비여, 나 눈을 감았다.

내 소리 이제 이 산천에 묻고
또 다른 소리 찾아
이 몸 이 산천 저 산천 떠돌리라
어서 북채를 잡아라.

-조태일, 「서편제」-

현 누더기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
차마 보지 못할너라 나직이 묻는 말씀
어디로서 좇아오며 어디로 가려는고
주려들 가는 사람인가 가게 되면 얻어 먹나
아무 데도 한가지라 날 따라 도로 가면
자네 원님 가서 보고 안접(安接)하게 하여줍세
겨우겨우 대답하되 우리 곳은 당진(唐津)이라
여러 해 흉년들어 살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자 친구환(新舊還)을 있는 자에 물리니
제 것도 못 바치며 남의 곡식 어찌할꼬
못 바치면 매 맞으니 매 맞고 더욱 살까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죽을 줄 알건마는
아니 가고 어찌하리 굶고 맞고 죽을 지경
차라리 구렁에나 얽혀 없이 못치이면
도리어 편할지라 이런 고로 가노메라
급히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보세
둘째 령(嶺)을 올라서서 고을 지경 바라보니
열 집에 일곱 집은 쉼그러니 비었더라
읍중(邑中)으로 들어가니 남은 집의 곡성(哭聲)이라
전년의 이천여 호 금년의 칠백 호라
미혹한 유부사(柳府使)와 담담한 이도호(李都護)는
국곡(國穀)도 중커니와 인명인들 아니 볼까
백성 없는 곡식 바다 그 무엇에 쓰려하노
출도한 후 전령하여 니징(里徵) 족징(族徵) 없이 하고
허두(虛頭)잡이 호역들을 태반이나 덜어 주고
친구환 칠만 석은 탕감하자 아뢰겠네

-구강, 「북새곡(北塞曲)」-

세 끼 밥벌이 고단할 때면 이봐
수시로 늘어나는 현 조율이나 하자구
우린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어차피 한 악기에 정박한 두 현
내가 저 위태로운 낙엽들의 잎맥 소리를 내면
어이, 가장 낮은 흙의 소리를 내줘
내가 팽팽히 조여진 비명을 노래할 테니
어이, 가장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으로 받아줘
세상과 화음 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주 앉아 내공에 힘쓰자구
내공이 깊을수록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
모든 현들은
어미집 같은 한없는 구멍 속에서
제 소리를 일군다지
그 구멍 속에서 마음 놓고 운다지

-정끝별, 「현 위의 인생」-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이제는 뿌리보다 줄기를 믿는 편이다

줄기보다는 가지를,
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
잎보다는 하염없이 지는 꽃잎을 믿는 편이다

희박해진다는 것
언제라도 훔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지 끝의 이파리가 위태롭게 파닥이고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뿌리로부터 달아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뿌리로부터 달아나려는 정신의 행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허공의 손을 잡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뿌리 대신 뿔이라는 말은 어떤가

가늘고 뽀죽해지는 감각의 촉수를 밀어 올리면
감히 바람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소의 뿔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뿌리로부터 온 존재들,
그러나 뿌리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는 발걸음들
오늘의 일용할 잎과 꽃이
천천히 시들고 마침내 입을 다무는 시간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이미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나희덕, 「뿌리로부터」-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 「폭포(瀑布)」-

내 목소리가
저 물소리의 벽을 깨고 나아가
하늘로 힘껏 솟구쳐 올라야만 한다.

소리로써 마침내 소리를 이기려고
가인(歌人)은
심산유곡 폭포수 아래에서 날마다
목청에 핏물 어리도록 발성을 연습하지만,

열 길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쉽게 그의 목소리를 덮쳐
계곡을 가득 물소리 하나로만 채워버린다.

그래도 그는 날이면 날마다
산에 올라
제 목소리가 물소리를 뛰어넘기를 수없이 기도(企圖)하지만,

한 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폭포는
준엄한 스승처럼 곧추 앉아
수직의 말씀만 내리실 뿐이다.

끝내
절망의 유복자를 안고 하산(下山)한 그가
발길 닿는 대로 정처없이 마을과 마을을 흘러 다니면서
소리의 승천(昇天)을 이루지 못한 제 한(恨)을 토해냈을 때,

그 핏빛 소리에 취한 사람들이
그를 일러
참으로 하늘이 내리신 소리꾼이라 하더라.

-이수익, 「승천(昇天)」-

한강물은 쉼 없이 흐르고
삼각산은 끝 간 데 없이 높아라.
강산이 변해도
간사한 무리는 없어지질 않네.
한 사람이 중상모략을 하면
여러 입들이 차례로 전해
치우친 말을 믿게끔 하니
정직한 이는 어디에 발붙일까.
봉황은 깃털이 약해
가시나무에 깃들이지 못하니
아쉬운 맘 한 줄기 바람 타고서
멀리멀리 서울을 떠나고 싶네.
떠도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머물러 미련을 두어도 소용없기 때문.
대궐 문은 포악한 자가 지키고 있으니
무슨 수로 나의 충정 아뢰리.
옛 성인 훌륭한 말씀에
향원은 덕의 적이라 했지.

洌水流不息
三角高無極
河山有遷變
朋淫破無日
一夫作射工
衆喙遞傳驛
諛邪既得志
正直安所宅
孤鸞羽毛弱
未堪受枳棘
聊乘一帆風
杳杳辭京國
放浪非敢慕
濡滯諒無益
虎豹守天閭
何繇達衷臆
古人有至訓
鄉愿德之賊

-정약용, 「고의(古意)」-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灼熱)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쫓아리라.

-유치환, 「생명의 서(書)」-

머리는 이미 오래 전에 잘렸다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봄바람 불어도 움직일 수 없고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아
숨막히게 답답하다
라일락 향기 짙어지면 지금도
그날의 기억 되살아나는데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줄지어 늘어서 있는
길가의 수양버들
새 잎조차 피어날 수 없어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어
몸통으로 잎이 돋는다

-김광규, 「4월의 가로수」-

아프다, 나는 쉬이 꽃망울을 터트렸다.
한때는 자라이었다.
풀밭에서 만난 봉오리들 불러모아
피어봐, 한번 피어봐 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상처도 없이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내가 부른 꽃들
모두 졌다.

아프다, 다시는 쉬이 꽃이 되지 않으려다.
뽕뽕 얼어붙은
내 몸의 수만 개 이파리들
누가 와서 불러도
죽다가도 살아나는 내 안의 생기가
무섭게 흔들어도
다시는 쉬이 꽃이 되지 않으려다.

-오봉옥, 「꽃」-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춤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이육사, 「절정」-

모든 것은 나의 안에서
물과 피로 육체를 이루어 가도

너의 밝은 은(銀)빛은 모나고 분쇄(粉碎)되지 않아

드디어 무형(無形)하리만큼 부드러운
나의 꿈과 사랑과 나의 비밀을
살에 박힌 파편(破片)처럼 쉬지 않고 찌른다.

모든 것은 연소되고 취(醉)하여 등불을 향하여도,
너만은 물러나와 호올로 눈물을 맺는 밤……

너의 차가운 금속성(金屬性)으로
오늘의 무기를 다져 가도 좋을,

그것은 가장 동지적(同志的)이고 격렬한 싸움!

-김현승, 「양심의 금속성」-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 넘어 큰 산 그 넘엇산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 묵중히 엮드린 산,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
섰고 머루 다랭이꼴 바위 엉서리에 엮혔고, 살살이 떡갈나
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 산, 산들! 누거 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 축하매,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참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
으랴?

-박두진, 「향현(香峴)」-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슬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히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여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에의 껌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문병란, 「꽃씨」-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턱 움 속에서 두 손 오구려 흑
흑 입김 불며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거북네는 만주서 왔단다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나고 할배는 만주에 묻히고
세월이 무심찮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돌아
왔단다

띠팡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지으며 가 가 거 겨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돌아
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 배추꼬리를 씹으
며 꺼무테테한 아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배추꼬리를 씹으
며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

첫눈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턱 움 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

깊은 밤 눈 덮여 고적한 곳에
꽃꽂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침엽수들이 서 있다

먼 산맥을 이어
내어달리고 싶은 마음이건만
푸르른 정열에 가두어두었다

눈이 내리면 온몸에 흰눈을 이고
바람이 불면 우우 소리를 낸다

일월성신 잦은 계절의 변화에도
일새조차 변하지 않음은 태고적 고독인가

차운 바람 부는 날에도
나무는 오히려 위엄을 잃지 않는다

그러기에 겨울밤 차가운 별도
침엽수 머리 위에 더욱 반짝인다

-김명수, 「침엽수 지대」-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뵈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흥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장석남, 「배를 밀며」-

푸른 산봉우리 옆에 집을 엮고서
병을 들고서 맑은 시냇물을 담았네.
길은 대숲 사이로 가늘게 나 있고
울타리는 산이 보이게 나지막하네.
바위를 베면 두건에 이끼가 묻고
꽃을 심으면 진흙에 신발 자국 찍히네.
변화한 세상은 꿈에도 가지 않으니
한가한 맛은 호젓한 집에 있다네.

結屋倚青嶂
携瓶盛碧溪
逕因穿竹細
籬爲見山低
枕石巾粘藓
栽花屐印泥
繁華夢不到
閑味在幽栖

-권용인, 「산거(山居)」-

상 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선(群仙)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烟月)이 내 분(分)에 알맞구나.

꽃잠에 꿈을 꾸어 십이루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군선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백만억창생을 어느 곁에 물으리.

하늘이 이저신 제 무슨 술(術)로 기워 내었는고,
백옥루 중수(重修)할 제 어떤 바치 이루어 내었는고.
옥황께 사뢰어 보자 하더니 다 못하고 왔구나.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향(香)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
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
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
끈땀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
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
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
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
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신동엽, 「향아」-

한겨울 못 잇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苦忘亂抽書 잇음 많아 어지러이 책을 뽑아 놓았다가

散漫還復整 이리저리 흩어진 책을 다시 정리하네.

曜靈忽西頽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江光搖林影 강 빛에는 숲 그림자 흔들리누나.

扶筇下中庭 막대 짚고 뜨락으로 내려가

矯首望雲嶺 고개 들고 구름 재를 바라다보네.

漠漠炊烟生 아득하게 밥 짓는 연기가 일고

蕭蕭原野冷 으스스 산과 벌은 싸늘하구나.

田家近秋穫 농사집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喜色動白井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돌아.

鴉還天機熟 갈가마귀 날아드니 절기 익었고

鷺立風標迴 해오라비 우뚝 서니 모습 흰칠해.

我生獨何爲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

宿願久相梗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無人語此懷 이 회포를 누에게 얘기할거나

搖琴彈夜靜 거문고만 뚝뚝 탄다, 고요한 밤에.

-이황, 「만보(晩步)」-

그 애가 샘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머리 위에 이고 오는
것을 나는 항용 모시밭 사잇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요. 동이 갖의 물방울이 그 애의 이마에 들어 그 애 눈썹을
적시고 있을 때는 그 애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
나갔지만, 그 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엿지르고 조심해
걸어와서 내 앞을 지날 때는 그 애는 내게 눈을 보내 나와
눈을 맞추고 빙그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마 그 애는
그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엿지르고 걸을 수 있을 때
만 나하고 눈을 맞추기로 작정했던 것이겠지요.

-서정주,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엿지르고
걸어왔을 때」-

우리 고장에서는

오빠를

오라베라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로

오오라베 부르며

나는 앞이 각 막히도록 좋았다.

나는 머루처럼 투명(透明)한

밤하늘을 사랑했다.

그리고 오디가 셋까만

뽕나무를 사랑했다.

혹은 울타리 숲에 피는

이슬마꽃 같은 것을……

그런 것은

나무나 하늘이나 꽃이기보다

내 고장의 그 사투리라 싶었다.

참말로

경상도 사투리에는

약간 풀냄새가 난다.

약간 이슬냄새가 난다.

그리고 입안에 마르는

황토(黃土)흙 타는 냄새가 난다.

-박목월, 「사투리」-

물 좋은 명태의 대가리며 몸통을 칼로 쫄쫄 다져 엄지손톱 크기로 나박나박 썬 무와 매운 양념에 버무려 먹는 찬이 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명태선이라 한다 국어사전에는 물론 없다

이 별스럽고 오래된 반찬은 눈발의 이동경로를 따라 북방에서 남으로 내려왔을 것 같다 큰 산에 눈 많이 내리거나 처마 끝에 고드름 짹짹해야 내륙의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이것을 나는 노인처럼 편애하였다, 들창에 눈발 치는 날 달착지근한 무를 씹으면 입에서 눈 밟는 소리가 나서 좋았고, 덜 다져진 명태뼈가 가끔 이에 끼여도 괜찮았다

나도 얼굴을 본 적 없는 할아버지 맛있게 자셨다는 이것을 담글 때면 어머니는 숨치마 입은 북쪽 산간지방의 여자가 되었으리라 그런 날은 오지향아리 속에 먼바다를 귀히 모신다고 생각했으리라

갓 담근 명태선을 놓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오늘 저녁, 눈발이 창가에 기웃거린다 북방한계선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수만 마리 명태떼가 몰려오고 있다

-안도현, 「북방(北方)」-

눈이 내리네

바람 맞서 울고 섰는 나무들이

눈에 덮이네

그대와 걸던 산길

북한산 기슭의 그 외딴 숲막

함께 앉던 그 자리에도

눈이 내려 쌓이네

한 해가 저물고 또 한 해가 와도

굳은 맹세 변함 없건만

괴로워라 지금 여기 없는 그대를 위해

나는 술잔을 채울 뿐

눈이 오는 날은

울고 싶어라

그러나 기약한 그날은 갑자기

눈처럼 오는 법이 없기에

빛나는 아침을 위해

나는 녹슨 칼날을 닦으리

눈보다 차갑고

눈보다 순결한 마음으로

깊이 깊이 사랑을 새겨두리

-정희성, 「눈 덮인 산길에서」-

世愛牧丹紅 세상에선 모두들 붉은 모란꽃만 사랑하여

栽培滿院中 정원에 가득히 심고 가꾸었네

誰知荒草野 누가 이 거친 초야에

亦有好花叢 좋은 꽃떨기 있는 줄 알기나 하라

色透村塘月 예쁜 모습은 연못 속의 달을 꿰뚫었고

香傳壟樹風 향기는 밭두렁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地偏公子少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귀공자 적어

嬌態屬田翁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이누나

-정습명, 「석죽화(石竹花)」-

日出猿生員(일출원생원) 해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描過鼠盡死(묘과서진사)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
黃昏蚊檐至(황혼문침지)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夜出蚤席射(야출조석사)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 대네.

-김병연, 「원생원(元生員)」-

고추밭을 걷어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뜻밖의 수확을 들어올리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 같기도 했다

그 은밀한 의식을 훑쳐보다가

나는 말라가는 고춧대를 덮어주고 돌아왔다

가을같이 하려고 밭에 다시 가보니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

불꽃도 흙 속에 잦아든 지 오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 움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

-나희덕, 「어떤 출토(出土)」-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견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밭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나희덕, 「귀뚜라미」-

계절(季節)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追憶)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詩)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小學校)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異國) 소녀들의 이름과,
별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詩人)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北間島)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외다.

-윤동주, 「별헤는 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천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두 앓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팍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나는 경부선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다.

열차가 수원(水原)을 지날 무렵,
서호(西湖)에 반사된 현란한 저녁해가
차창 가득히 어떻게나 눈부시던지,

나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당이 속을 파고드는
한 마리 눈먼 벌레가 되었다.

추수가 끝난 들녘도
앞이 진 잡목숲도, 인가(人家)도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果肉) 속이었다.

-김종길, 「저녁해」-

동지(冬至) 스들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블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황진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즈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벡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푸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아마존 수족관집의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여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뚫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컷바퀴에 소음 부글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꽃들이 만발했다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고은, 「속(續) 눈길」-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래 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
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갹(坑) 속 같은 마을.

꿀깍, 해가, 노루 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
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
은 앓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木瓜)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
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
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내려
묻는 이름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
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읍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月暈)

-박용래, 「월훈(月暈)」-

춥다, 웅크린 채 서로를 맞대고 있는
 집들이 작은 창으로 불씨를 품고 있었다.
 가로등은 언덕배기부터 뚜벅뚜벅 걸어와
 골목의 담장을 세워주고 지나갔다.
 가까이 실뿌리처럼 금이 간
 담벼락 위엔 아직 건지 않은 빨래가
 바람을 차고 오르내렸다.
 나는 미로같이 얽혀 있는 골목을 나와
 이정표로 서 있는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샀다.
 어둠에 익숙한 이 동네에서는
 몇 축의 전구로 스스로의 몸에
 불을 매달 수 있는 것일까.
 점점이 피어난 저 창이 작은 불빛들
 불러 모아 허물없이 잔을 돌리고 싶었다.
 어두운 방안에서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건너가는 먼 불빛이었구나.
 따스하게 안겨오는 환한 불빛 아래
 나는 수수꽃처럼 서서 웃었다.
 창밖을 보면 보일러의 연기 따라 별들이
 늙은 은행나무 가지 사이마다 내려와
 불씨 하나씩 달고 있었다.

-윤성택, 「산동네의 밤」-

알록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메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 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짜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댕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꿈에 단니는 길히 자취곳 날작지면
 님의 집 창(窓) 맞기 석로(石路)라도 달흐리라
 꿈길히 자취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이명환-

빚림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산(山)진이 수(水)진이 해동청(海東靑) 보르미도 다 쉬여
 넘는 고봉(高峰) 장성령(長城嶺) 고기,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흥 번도 쉬여 넘어 가
 리라.

-작자 미상-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피헤 매게 흐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겹고 치도 빠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른
디 사면이 거머 어둑 천지(天地) 적막(寂寞) 가치노을 썰는
디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훤 내 안히야 엇다가 ㄴ을호리오.

-작자 미상-

산그늘 내린 발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툐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좌아좌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좌아좌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없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나
옛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김광규, 「상행(上行)」-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
거릴 게다.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강」-

내 마음은 한 쪽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旗)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그 일이란다.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悲哀)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쪽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 드린다.

-김남조, 「정념(情念)의 기(旗)」-

무너진 성(城)터 아래 오랜 세월을 풍설(風雪)에 깎여 온
바위가 있다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한 줄기 바람에 조잘히 씻기우는 풀잎을 바라보며
나의 몸가짐도 또한 실오리 같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
아 우리들 태초(太初)의 생명(生命)의 아름다운 분신(分身)으로 여기 태어나

고달픈 얼굴을 마조 대고 나직히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조지훈, 「풀잎 단장(斷章)」-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뻗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경림, 「나무」-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轉覽會)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 「성에꽃」-

속이 팍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응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 중 땅에 가까운 잎 몇장이 스스로 겉잎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절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붙을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김선우, 「빌려줄 몸 한채」-

바위에 섰는 솔이 늙연(凜然)한 줄 반가운데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없다
 어찌다 봄 빛을 가져 변할 줄 모르나니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이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淸高)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꽃이 무한호되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뛰여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귀(貴)고 어이리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없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어찌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똥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똥거린다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위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래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읍아가며 슬피 읍니다

-김소월, 「접동새」-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출발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
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과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왓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배한봉, 「우포늪 왓새」-

가마귀 검다 흐고 백로(白鷺)야 웃지 마라
깃치 거문들 속조차 거물소냐
아마도 것 희고 속 검을손 너뿐인가 흐노라

-이직-

가마귀 눈비 마즈 회는 듯 검노미라
야광 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라
님 향(向)흔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라

-박팽년-

앞 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 있는데
사람을 보고 문득 놀라 일어나서는
여뀌꽃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앉았네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
가랑비에 깃털이 다 젖는구나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가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을 잊고 서 있다고

前灘富魚蝦
有意劈波入
見人忽驚起
蓼岸還飛集
翹頸待人歸
細雨毛衣濕
心猶在灘魚
人道忘機立

-이규보, 「여뀌꽃과 백로(蓼花白鷺)」-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려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놀러 놀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운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려요.
간고등어 한 손이든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여보게 만술(萬述) 아버지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선 굶은 밤이슬이 온다.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의 축문(祝文)」-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빠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짜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나
그들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이정록, 「의자」-

낮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미답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래
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
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여졌다
착하디착해서 세관은 가지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백석, 「선우사(膳友辭)」-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힘한 땅에서 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기 골짜기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혈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총을 안고 뿔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이용악, 「하나씩의 별」-

지금쯤 물거리 한 짐 해놓고
넷가에 앉아 저녁놀을 바라볼 시간……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
별판에 버려진 사람들에게겐 옛날밤에 없다
지금쯤 아이들 신작로에 몰려
갈껌질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로 외쳐대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몸짓으로 발버둥치다
지친 다리 끄는 오르막에서 바라보면
너덜대는 지붕 위에 갈구렁달이 걸렸구나
시들고 찌든 우리들의 얼굴이 걸렸구나

-신경림, 「갈구렁달」-

거수(居水)에 이리커든 거산(居山)이라 우연(偶然)하라
 산방(山房)의 추만(秋晚)커늘 유희(幽懷)를 둘 더 업서
 운길산(雲吉山) 돌길히 막더 집고 쉬여 올라
 임의소요(任意逍遙)하며 원학(猿鶴)을 벗을 삼아
 교송(喬松)을 비기여 사우(四隅)로 도라 보니
 천공(天工)이 공교(工巧)하야 뫼뫼출 썸이논가
 흰구름 말근 너는 편편(片片)이 썸여 나라
 노푸락 나지락 봉봉곡곡(峯峯谷谷)이 면면(面面)에 버러쳐든
 서리친 신남기 봄꽃도곤 불거시니
 금수병풍(錦繡屏風)을 첩첩(疊疊)이 둘너는 듯
 천태만상(千態萬象)이 참람(僭濫)하야 보이느다
 힘 세이 다다면 내 분에 올라마는
 금(禁)하리 업슬시 나도 두고 즐기노라
 흠물며 남산(南山) 느린 굻히 오곡(五穀)을 가초 심거
 먹고 못 남아도 굻지나 아니하면
 내 집의 내 밥이 그 맛시 엇더하뇨
 채산조수(採山釣水)하니 수록품(水陸品)도 잠깐 굻다
 감지봉양(甘旨奉養)을 족(足)다사 할가마는
 오조함정(烏鳥含情)을 뵈고야 말넛노라
 사정(私情)이 이리하야 아직 물러나와신들
 망극(罔極)하 성은(聖恩)을 어니 각(刻)에 이질넛고
 견마미성(犬馬微誠)은 백수(白首)에야 더욱 김다
 시시(時時)로 머리 드러 북신(北辰)을 브라보니
 늙 모르는 눈물이 두 사미에 다 젓느다

-박인로, 「사제곡(莎堤曲)」-

농암(龕巖)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 로다
 인사(人事)이 변(變)하들 산천(山川)이썸 가실가
 암전(巖前)에 모수(某水) 모구(某丘)이 어제 본 듯 하에라

-이현보, 「농암가(龕巖歌)」-

외모도 남에 비해 그리 빠지지 않고
 바느질 솜씨 길쌈 솜씨도 좋건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자란 까닭에
 좋은 중매 자리 나를 몰라준다오.

춡고 굶주려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창가에서 베만 짰다네
 오직 내 부모님만 가엾다 여기실 뿐
 그 어떤 이웃이 이내 속을 알아주리오.

밤이 깊어도 베를 짜는 손 멈추지 않고
 베틀 소리만 빼격빼격 처량하게 우네
 베틀에 짜여 가는 이 한 필 비단
 끝내는 어느 색시의 옷이 되려나.

가위로 싹둑싹둑 옷감을 마르노라면
 추운 밤에 손끝이 곱아 오네
 시집가는 누군가를 위해 길옷을 만들고 있지만
 이내 몸은 해마다 홀로 잔다오.

-허난설헌, 「빈녀음(貧女吟)」-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올봄도 잎을 내었다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榕樹)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번개가 가슴을 찢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
 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세들어 사는,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뵈어 있기도 한다

밭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마약 퍼들고 있다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었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꺼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안도현, 「스며드는 것」-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고
 뭐한다고.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고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편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뭘 헛짓이냐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냐
 뭘 소용이냐.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저 달 금방 저물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텅다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한다고 뭘 소용이냐

-김용택, 「들국」-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봄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찻잔 찻잔 찻잔 찻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찻잔 찻잔 찻잔 찻잔,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문태준, 「평상이 있는 국숫집」-

종다리 뜨는 아침 언덕 우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이었다.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리었고
 가벼운 날개 밑에 머-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낮더라.

자주 투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단애(斷崖)의 허리에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웃었다.

오늘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
 두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영이 코밑에 미운 너와 나는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

-김기림, 「추억」-

광혜원 이월마을에서 칠현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그만 나는 영문 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숲의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은 사람이 있겠
 으냐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야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래어
 온 울음이었다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건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에 온 것이나 다름없이
 자작나무는 오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인 양 아름답다

나는 나무와 나뭇가지와 깊은 하늘 속의 우듬지의 떨림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우쭐해서 나뭇짐 지게 무겁게 지
 고 싶었다

아니 이런 추운 곳의 적막으로 태어나는 눈엽이나
 삼거리 술집의 삶은 고기처럼 순하고 싶었다
 너무나 교조적인 삶이었으므로 미풍에 대해서도 사나웠으
 므로

얼마만이냐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십여 년 만에 강렬
 한 곳이다

강렬한 이 경건성!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벽찬 가슴은 벌써 알고 있
 다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낱알 중의 하나임을 깨달을 때가 온
 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
 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깨물어 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남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
 난다

나는 광혜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의 칠현산 험
 한 길로 서슴없이

-고은,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혹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겼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지도에서는 푸른 것을 바다라 하였고
얼룩덜룩한 것을 육지라 부르는
습관을 길러 왔단다.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저 하늘을 닮아서 바다는 한결로 푸르고

육지가 석류껍질처럼 울긋불긋한 것은
오로지 색채를 즐긴다는 단조한 이유가 아니란다.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으냐?

시방 나는
똥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갈 날을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다.

도시 지구는 한 덩이 푸른 석류였거니……

-신석정, 「지도」-

목련이 도착했다
한전 부산지사 전차기지터 앞
꽃들이 조금 일찍 봄나들이를 나왔다
나도 꽃 따라 나들이나 나갈까
심하게 앓고 난 뒤의 머릿속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전차 구경 와서 아주 뿌리를 내렸다는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겠지
꽃양산 활짝 펴 든
머느리 따라 구경 오신 할아버지도 그랬겠지
나뭇가지에 코일처럼 감기는 햇살,
저 햇살을 따라가면
나무 어딘가에 숨은 전동기가 보일는지 모른다
전차바퀴 기념물 하나만 달랑 남은 전차기지터
레일은 사라졌어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레일을 따라
바퀴를 굴리는 힘을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지난밤 내리치던 천둥번개도 찌릿찌릿
저 코일을 따라가서 동력(動力)을 얻진 않았는지,
한 량 두 량 목련이 떠나간다
꽃들이 전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든다
저 꽃전차를 따라가면, 어머니 아버지
신혼 첫밤을 보내신 동래온천이 나온다

-손택수, 「목련 전차」-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 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렇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
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나희덕, 「못 위의 잠」-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입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계량-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러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
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
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올고붙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 버리며 나
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
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
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백석, 「수라(修羅)」-

신령님……

처음 내 마음은
수천만 마리
노고지리 우는 날의 아지랑이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비늘을 단 고기들이 헤엄치는
초록의 강 물결
어우러져 날으는 애기 구름 같았습니다

신령님……

그러나 그의 모습으로 어느 날 당신이 내게 오셨을 때
나는 미친 회오리바람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쏘내기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님……

바닷물이 적은 여울을 마시듯이
당신은 다시 그를 데려가고
그 휘—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그러고는 또 기인 밤을 두셨습니다

신령님……

그리하여 또 한번 내 위에 밝는 날
이제
산골에 피어나는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의 빛같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서정주, 「다시 밝은 날에-춘향의 말 2」-

그리운 이 그리워 마음 둘 곳 없는 봄날엔
홀로 어디론가 떠나 버리자.

사람들은

행선지가 확실한 티켓을 들고

부지런히 역구를 빠져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별과 만남의 걱정으로 눈물짓는데

방금 도착한 저 열차는

먼 남쪽 푸른 바닷가에서 온 완행.

실어 온 동백꽃잎들을

축제처럼 역두에 뿌리고 떠난다.

나도 과거로 가는 차표를 끊고 저 열차를 타면

어제의 어제를 달려서

잃어버린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운 이 그리워

문득 타 보는 완행열차,

그 차창에 어리는 봄날의

우수.

-오세영, 「그리운 이 그리워」-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떡덥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唐楸)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도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라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라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쪽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沼)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였다

-나희덕, 「푸른 밤」-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퉁에서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검의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羊)처럼
 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윤동주, 「흰 그림자」-

잘라놓은 연어의 살 속엔
 나이테 무늬가 있다
 연하디 연한 연어의 살결에
 나무처럼 단단한 한 시절이 있었다는 뜻이라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로 솟구치던 나무를
 눈바람이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제 근육에 새겨넣은 굴렁쇠같이 단단한 것이
 나무의 나이테이듯이
 한사코 아래로만 흐르려는 물길을 거슬러
 폭포수를 뛰어넘는 연어를
 사나운 물살이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칠 때마다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솟구쳐
 여린 살 속에 쓰러린 햇살이 나이테로 쌓였으리라
 켜놓은 원목의 나이테가
 제가 맞은 눈바람을 순한 향기로 뿜어내놓듯이
 그래서
 연어의 살결에선 강물 냄새가 나는 것이다
 죽은 어미연어의 나이테를 먹은 새끼연어가
 폭포수를 뛰어넘어 몇 만 년을 두고
 다시 그 강에 회귀하는 것은 다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복효근, 「연어의 나이테」-

푸른 담쟁이 헤치고 독락당(獨樂堂)을 지어 내니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수많은 긴 대나무 시내 따라 둘러 있고
 만 권의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
 왼쪽엔 안회 증삼, 오른쪽엔 자유 자하.
 서책을 벗 삼으며 시 읊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독락,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사마온공 독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속의 참 즐거움 이 독락에 견줄쏘냐.
 진경을 다 못 찾아 양진암(養眞庵)에 돌아들어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퇴계 이황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관어대(觀魚臺)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에 자취가 보이는 듯.
 손수 심은 장송은 옛 빛을 띠었으니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몇몇 옛 자취 보며 문득 생각하니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 병풍 절로 되어
 용면의 솜씨로 그린 듯이 벌여 있고
 깊고 맑은 못에 천광운영이 어리어 잠겼으니
 광풍제월이 부는 듯 비치는 듯.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
 맑은 시내 비껴 건너 낚시터도 뚜렷하네.
 문노라, 갈매기들아. 옛일을 아느냐.
 엄자룡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인가.
 이끼 낀 낚시터에 저녁연기 잠겼어라.
 -박인로, 「독락당」-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기루었습니다
 자던 옷을 고쳐 입고 뜰에 나와 퍼지르고 앉아서 달을 한
 참 보았습니다
 달은 차차차 당신의 얼굴이 되더니 넓은 이마 둥근 코 아
 름다운 수염이 역력히 보입니다
 간 해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이더니 오늘 밤에는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그믐달이 된 줄을 당신이 아십니까
 아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한용운, 「달을 보며」-

결국 남쪽 악양 방면으로 길을 꺾었다
 하루 종일 해가 들었다
 밥을 짓고 국 끓이며
 어찌다 생선 한 토막의 비린내를 구웠으나
 밥상머리 맞은편
 내 뼈를 발라 살점 엮어줄 사람의
 늘 비어 있던 자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따금 아직도 낯선 아랫마을 밤 개가
 킁킁거리며 그 부재의 이유를 묻기도 했다
 별들과 산마을의 불빛들은
 결코 나뉠 수 없는 우주의 경계로 인해
 밤마다 한 몸이 되고는 했다
 부럽기도 했다 해가 바뀔수록
 검던 머리 더욱 희끗거리고
 희끗거리며 날리는 눈발을 봐도
 점점 무심해졌다
 겨울바람이 처마 끝을 폴짝 뒤흔들다 간다
 아침이 드는 창을 비워두는 것은 옛 버릇이나
 무덤을 앞둔 여우들이 그러했듯이
 나 또한 북쪽 그리운 창을 향해 머리를 눕히고
 길고 먼 꿈길을 청한다
 -박남준, 「이사, 악양」-

네가 살아온 나날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는가
 몸통 군데군데 썩어
 흉한 상처 거뭇게 드러나고
 팔다리 여기저기 잘리고 문드러져
 온몸이 일그러지고 뒤틀렸지만
 터진 네 살갓 들치고
 바람과 노을을 동무해서
 어깨와 등과 손끝에
 자잘한 꽃들 노랗게 피어나는데
 비록 꽃향기 온 들판을 덮거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지는 못해도
 노란 꽃잎 풀 속에 떨어지면
 옛애기보다 더 애달픈
 초저녁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되겠지
 누가 말하는가 이 노래 듣는 이
 오직 하늘과 별뿐이라고
 -신경림, 「수유나무에 대하여」-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각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김기택, 「멸치」-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
 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
 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 소리, 어머
 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
 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
 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풀풀 수습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
 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기형도, 「바람의 집—겨울 판화 1」-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식돌임을 보라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맛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김남조, 「생명」-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텅자만은 둥글다.

땅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뽀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덩싹
 한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세영, 「열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
 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
 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니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
 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
 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켄'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벨 마리
 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열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계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김기택, 「벽」-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들에 갈아
 시퍼런 무쇠냄으로 바꾸고 싶다
 땀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비탈진 공터 언덕 위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누가 누구
 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쁜 세월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굽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착지근한 혀, 향시 우리
 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
 다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세차장 고무호스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
 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
 어뜯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쁜 세
 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집집마다
카렌다아를 한 장씩 뜯는 시간이면
검누른 소리 항구의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

머언 해로를 이겨낸 기선(汽船)이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하려는 검은 기선이
뒤를 이어 입항했었고
상륙하는 얼굴들은
바늘 끝으로 속 찢렸자
숫아나올 한 방울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
얼굴 얼굴 희머얼건 얼굴뿐

부두의 인부꾼들은
흙을 썩고 자라난 듯 꺼머티티했고
시금트레한 눈초리는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 가운데서 나는 너무나 어린
어린 노동자였고-

물 위를 도롬도롬 헤어 다니던 마음
흩어졌다도 다시 작대기처럼 곳곳해지던 마음
나는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다
나를 믿고져 했었다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은 항구로 돌아간다
부두로 돌아간다 그날의 나진이어

-이용악, 「항구」-

옥수수대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딘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딘는 저 결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 울대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흙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흙집에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이정록, 「희망의 거처」-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지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러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우탁-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천변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어찌나 잔디가 밟혀죽을 텐데
내 걱정 아랑곳없이
가르마길이 나고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밭들이 사람의 몸 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 있
는 것이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라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서 있거나
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그렇듯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도 알겠다

-북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昨過永明寺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暫登浮碧樓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城空月一片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石老雲千秋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麟馬去不返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天孫何處遊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長嘯倚風磴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
山靑江自流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이색, 「부벽루(浮碧樓)」-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놓았다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닌다
몸 어딘가, 쏘인 듯 아프다
생(生)이 벌겍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이건 지독한 노역(勞役)이다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
모르다니! 이젠 가지밭길이 끔찍해졌다
이 길,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돌아가지 않으리라
가시나무에 기대 다짐하는 나여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니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천양희, 「가시나무」-

저녁 한동안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 피를 데워 주고
밥상머리에
된장찌개도 데워 주고
아버지가 식후에 석간을 읽는 동안
아들이 식후에
이웃집 라디오를 엿듣는 동안
연탄가스는 가만가만히
취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다.
그날 밤
가난한 서울의 시민들은
꿈에 불 것이다.
날개에 산호빛 발톱을 달고
앞다리에 세 개나 새끼 공룡의
순금의 손을 달고
서양 어느 학자가
Archaeopteryx라 불렀다는
취라기의 새와 같은 새가 한 마리
연탄가스에 그을린 서울의 겨울의
제일 낮은 지붕 위에
내려와 앉는 것을.

-김춘수, 「겨울밤의 꿈」-

개봉동 입구의 길은
한 송이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고,
굽은 길 어디에선가 빠져나와
장미는
길을 제 혼자 가게 하고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선다.

보라 가끔 몸을 흔들며
잎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장미는 이곳 주민이 아니어서
시간 밖의 서울의 일부이고,
그대와 나는
사촌들 얘기 속의 한 토막으로
비 오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에나 고인다.

말해 보라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를.
저 불편한 의문, 저 불편한 비밀의 꽃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두드려 보라 개봉동 집들의 문은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

-오규원, 「개봉동과 장미」-

어찌다 바람이라도 와 흔들면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

맨드라미, 나팔꽃, 봉숭아 같은 것
철마다 피곤
소리없이 저 버렸다.

차운 한겨울에도
외롭게 햇살은
청석(靑石) 섬돌 위에서
낮잠을 즐다 갔다.

할일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
꿈결같이 사람들은
살다 죽었다.

-김춘수, 「부재」-

다 왔다.

하늘이 자잔히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다, 허투루루.
바람이 지나가다 말고 투덜거린다.
엘리베이터 같이 쓰는 이웃이
걸음 멈추고 같이 투덜대다 말고
인사를 한다.
조그만 인사, 서로가 살갑다.

얇은 서리 가운 입던 꽃들 사라지고
땅에 꽂아논 철사 같은 장미 줄기들 사이로
낙엽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밟히면 먼저 떨어진 것일수록 소리가 엷어진다.
아직 햇빛이 닿아 있는 피라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하나하나 눈인사하듯 푹푹해졌다.
더 푹푹해지면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이 가을의 모든 것이,
시각을 떠나
청각에서 걸러지며.

두터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무 몇이
가랑가랑 마른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들을 내놓는다.
근육을 저리 바싹 말려버린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
무엇에 맞았는지 깊이 파인 가슴도 하나 있다.
다 나왔소이다, 그가 속삭인다.
이런! 삶을, 삶을 살아낸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간다.

-황동규, 「삶을 살아낸다는 건」-

지팡이 짚고 바람 쐬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 되었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 되었는데,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아이 불러 하는 말, 이 깊은 산속에서 해산물을 볼쏘냐.
살진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흡족히 담아두고
붕어회에도 넣어, 핑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낮에 뿌리는데
뉘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회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평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 비추소서.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밭 갈고 썸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이 몸은 이 강산풍월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박인로, 「노계가」-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볕을 쬐이고 있다.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넣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마른버짐 사이로 아지랑이 피어오를 것 같고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적살도 오를 것 같다.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마냥 넓게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볕에 못 이겨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오오, 얼마 만에 환해져보는가.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김기택, 「봄날」-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밤사이 내려와 놀던 초록별들의
 퍼렇게 멎든 날개쭉지가 떨어져 있다.
 어린날 뒤울안에서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눈물의 찌꺼기가
 비칠비칠 아직도 거기
 남아 빛나고 있다.

심청이네집 심청이
 빌어먹으러 나가고
 심봉사 혼자 앉아
 날무처럼 끄들끄들 즐고 있는 툇마루 끝에
 개다리소반 위 비인 상사발에
 마음만 부자로 쌓여주던 그 햇살이
 다시 눈 트고 있다, 다시 눈 트고 있다.
 장 승상네 참대밭의 우레 소리도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내 어린날 여름넷가에서
 손바닥 벌려 잡다 놓쳐버린
 벌거벗은 햇살의 그 반쪽이
 앞질러 달려와서 기다리며
 저 혼자 심심해 반짝이고 있다.
 저 혼자 심심해 물구나무 서 보이고 있다.

-나태주,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건넌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내 님플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아으
 잔월 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리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몰헛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서, 「정과정(鄭瓜亭)」-

꽃은 피는 대로 보고
 사랑은 주신 대로 부르다가
 세상에 가득한 물건조차
 한아름 팍 안아 보지 못해서
 전신을 다 담아도
 한 편(篇)에 2천원 아니면 3천원
 가치와 값이 다르건만
 더 손을 내밀지 못하는 천직(天職)

늪에서까지 아껴서
 어릿곳은 눈물의 사랑을 노래하는
 젊음에서 늙음까지 장거리의 고독!
 켄켄하면 술 한 잔 더 마시고
 터덜터덜 가는 사람

신이 안 나면 보는 척도 안 하다가
 쌀알만한 빛이라도 영원처럼 품고
 나무와 같이 서면 나무가 되고
 돌과 같이 앉으면 돌이 되고
 흐르는 냇물에 흘러서
 자국은 있는데
 타는 놀에 가고 없다.

-김광섭, 「시인」-

나이 이미 칠십을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이제는 시 짓는 일 벗을 만하건만
 어찌해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읊조리고
 저녁엔 솔개인 양 노래하네.
 어찌할 수 없는 시마(詩魔)란 놈
 아침저녁으로 몰래 따라 다니며
 한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 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날이면 날마다 심간(心肝)을 깎아 내
 몇 편의 시를 쥐어 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지고
 살도 또한 남아 있지 않다오.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이 모양 참으로 우습건만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천 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손바닥 부비며 혼자 크게 웃다가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려워라.

年已涉縱心
 位亦登台司
 始可放雕篆
 胡爲不能辭
 朝吟類蜻蛉
 暮嘯如鳶鷂
 無奈有魔者
 夙夜潛相隨
 一著不暫捨
 使我至於斯
 日日剝心肝
 汁出幾篇詩
 滋膏與脂液
 不復留膚肌
 骨立苦吟哦
 此狀良可嗤
 亦無驚人語
 足爲千載胎
 撫掌自大笑
 笑罷復吟之
 生死必由是
 此病醫難醫

-이규보, 「시벽(詩癖)」-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깰깰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깰깰대면서
 갈쭈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
 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
 무 일찍 왔나 두려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
 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들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침향(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딱딱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겨 넣어 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빼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년은 수저(水底)에 가라 앉아 있는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천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습시오.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陸水)와 조류(潮水)가 합수(合水)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後代)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은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복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벼슬길도 나그네 길이라 밤마다 꿈을 꾸노라면
고향의 푸른 산을 언제나 맴돌았었지.
허술한 집이나마 비바람 막을 수 있어
처자식 이끌고 돌아왔어라.
내 재주 원래가 모자라서 한 것이니
벼슬 일찍 버린 것도 아쉽지 않아라.
내 본성 원래가 웅졸하게만 살아왔기에
세상 건너기가 어려운 걸 알겠어라.
마을에 잔치 벌이니 고향 사람들 백안시하지 않고,
고깃배에 술 취하여 얼굴들 모두 붉어라.
선인들 남기신 글 다시금 읽어 가며
남은 생애 이 가운데 내어 맡기리라.

羈夢棲繞碧山 敝廬風雨挈家還
才疎敢惜休官早 性拙深知涉世艱
鄉里開筵無白眼 釣船沽酒每朱顏
殘書點檢先人跡 已辨餘生付此間

-정약용, 「봉화계부운(奉和季父韻)」-

봄밤에도 귀뚜리가 우는 것일까.
봄밤, 그러나 우리 집 부엌에선
귀뚜리처럼 우는 벌레가 있다.

너무 일찍 왔거나 너무 늦게 왔거나
아무튼 제철은 아닌데도 스스럼없이
목청껏 우는 벌레.

생명은 누구도 어찌지 못한다.
그저 열심히 열심히 울고
또 열심히 열심히 사는 당당한 궁지.

아아 하늘 같다.
하늘의 뜻이다.
봄밤 자정에 하늘까지 울린다.

귀를 기울여라.
태고의 원시림을 마구 흔드는
메아리 쩡쩡.

메아리 쩡쩡
서울 도심의 숲 속은 고층가
그것은 원시에서 현대까지를

열심히 당당하게 혼자서도 운다.
목청껏 하늘의 뜻을
아아 하늘만큼 크게 운다.

-이형기, 「봄밤의 귀뚜리」-

새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자연보호를 받고 있는
늙은 소나무
시원한 그림자 드리우고
바람의 몸짓 보여주며
백여 년을 변함없이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송진마저 말라버린 몸통을 보면
뿌리가 아플 때도 되었는데
너의 고달픈 짐작도 못 하고 회원들은
시멘트로 밑둥을 싸 바르로
주사까지 놓으면서
그냥 서 있으라고 한다
아무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도
늙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
오래간만에 털썩 주저앉아 너도
한 번 쉬고 싶을 것이다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기에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너의 줄음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백여 년 동안 뜨고 있던
푸른 눈을 감으며
끝내 서서 잠드는구나
가지마다 붉게 시드는
늙은 소나무

-김광규, 「늙은 소나무」-

가쁜한 내 샷갓이 빈 배와 같아
 한번 썼다가 사십 년 평생 쓰게 되었네.
 목동은 가벼운 샷갓 차림으로 소 먹이러 나가고
 어부는 갈매기 따라 샷갓으로 본색을 나타냈지.
 취하면 벗어서 구경하던 꽃나무에 걸고
 흥겨우면 들고서 다락에 올라 달구경하네.
 속인(俗人)들의 의관은 모두 걸치장이지만
 하늘 가득 비바람 쳐도 나만은 걱정이 없네.

浮浮我笠等虛舟 一着平生四十秋
 牧豎輕裝隨野犢 漁翁本色伴沙鷗
 醉來脫掛看花樹 興到携登翫月樓
 俗子依冠皆外飾 滿天風雨獨無愁

-김병연, 「영립(詠笠)」-

내 마지막으로 들 집이 비웃나무 우거진 기슭산 아니면 또
 어디이겠는가
 연지새 짝지어 하늘 날다가 깃털 하나 떨어뜨린 곳
 어육새 속새 덮인 흙산 아니고 또 어디이겠는가

마음은 늘 욕심 많은 몸을 꾸짖어도
 몸은 제 길들여 온 욕심 한 가닥도 놓지 않고 붙든다
 도시 사람들 두릅나무 베어 내고 그곳에 채색된 단청(丹青)
 올려서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추운 꿈 꿀 혈거(穴居)마저 줄어
 든다

먼 곳으로 갈수록 햇빛도 더 멀리 따라와
 내 여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던 말들이
 가지 되어 일어선다

산골 처녀야, 눈 시린 십자수(十字繡) 그만두고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의 콩밭 누렁잎 보아라
 길 끝에 무지가 차라리 편안인 산들이 누워 있고
 산 끝에 예지도 거추장스러워 피라미들에게 맡겨 버린
 물이 마음 풀고 흐르고 있다

내 이 길 역새 속으로 걸어가면
 배춧잎 같은 정맥 돋은 손을 쉬고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 한 사흘 나뭇가지에 걸어 둘
 수 있을까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 달력과 일과표와
 눈 닿으면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도
 등 두드려 한 열흘 잠재울 수 있을까

먼저 간 발자국들이 내 발길에 지워지고
 내 발자국 또한 뒤이은 발길에 이내 지워지고 말
 한쪽 끝에는 대구(大邱)를 달고 다른 쪽에는 은해사(銀海寺)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는 길

-이기철, 「길의 노래」-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축축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선반에 꿀단지 채워져 있기는커녕
 먼지만 부영게 쌓여 있는데,
 빛으로도 못 갚는 땀국물 같은 어린것들이
 방 안에 제멋대로 뒹굴어져 자는데,

보는 이 없는 것,
 알아주는 이 없는 것,
 이마 위에 이고 온
 별빛을 풀어 놓는다.
 소매에 묻히고 온
 달빛을 털어 놓는다.

-박재삼, 「어떤 귀로」-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신경림, 「농무」-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맘의 뒤를 따르고
 여기 쓸쓸한 자유(自由)는 곁에 있으나
 푹푹이 흰눈은 흘날려 이정표(里程表) 찍은 막대 고이 묻히고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혀
 오직 치미는 미움
 낮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는다.

어메야, 아직도 차디찬 묘(墓) 속에 살고 있느냐.
 정월(正月) 기울어 낙엽송(落葉松)에 쌓인 눈 바람에 흐트러지고
 산(山)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
 진눈개비는 금시로 내려 비애(悲哀)를 적시울 듯
 도형수(徒刑囚)의 발은 무겁다.

-오장환, 「소야의 노래」-

뿔뿔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시는窓(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홍량의 시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폭폭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건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폭폭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어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김광균, 「노신」-

손 흔들고 떠나 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靑山)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山)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人家)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치술을 생각한다.
남방(南方)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물려와
모든 야성(野性)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慣習)들.
서(西)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 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 오르고
생목(生木)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이기철, 「청산행」-

홀로 앉아 찾아오는 손님도 없이	獨坐無來客
빈 뜰은 비 기운에 어둑하구나.	空庭雨氣昏
물고기가 흔들리는 연잎이 움직이고	魚搖荷葉動
까치가 밟았는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鵲踏樹梢翻
거문고 젖었어도 줄에서는 소리가 나고	琴潤絃猶響
화로는 싸늘해도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爐寒火尙存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 막으니	泥途妨出入
하루 종일 문을 닫아걸고 있으리.	終日可關門

-서거정, 「독좌(獨坐)」-

심지를 조금 내려야겠다
내가 밝힐 수 있는 만큼의 빛이 있는데
심지만 뿡아올려 등잔불 더 밝히려 하다
그으름만 내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잠깐 더 태우며 빛을 낸들 무엇하랴
욕심으로 타는 연기에 눈 제대로 뜰 수 없는데
결국은 심지만 못 쓰게 되고 마는데

들기름 콩기름 더 많이 넣지 않아서
방안 하나 겨우 비추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등잔이 이 정도 담으면
넉넉하기 때문이다
넘치면 나를 태우고
소나무 등잔대 쓰러뜨리고
창호지와 문설주 불사르기 때문이다

욕심부리지 않으면 은은히 밝은
내 마음의 등잔이어
분에 넘치지 않으면 법구경 한권
거뜰히 읽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빛이어

-도종환, 「등잔」-

산은 항상 말이 없고
강은 골짜기에 갈수록 소리내어 흐른다
이 두 다른 갈래가
그러나 조화를 이루어
얼굴이 다르지만 화목한 영위로
나가고 있음을 본다.
세상이 생기고부터
짜증도 안 내고 그런다
이 가을 햇빛 속에서
단풍빛으로 물든 산은
높이 솟아 이마가 한결 빛나고
강물은 이리저리 몸을 뒤틀며
반짝이는 노릇만으로
그들의 존재를 없는 듯이 알리나니
이 천편일률로 똑같은
젓바퀴 같은 되풀이의 일월 속에서
그러나 언제나 새로움을 열고있는
이 비밀을 못 캐 채
나는 드디어 나이 오십을 넘겼다.

-박재삼, 「일월(日月) 속에서」-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 바람

알았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몇은 듯
새삼 듣는 빗날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정지용, 「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한낮은 뒤숲에서 매미가 우네.

그 소리도 가지가지의 매미 울음.

머언 어린 날은 구름을 보아 마음대로 꽃이 되기도 하고
잎이 되기도 하고 친한 이웃 아이 얼굴이 되기도 하던 것을.

오늘은 귀를 뜨고 마음을 뜨고, 아, 임의 말소리, 미더운 발
소리, 또는 대님 푸는 소리로까지 어여빠 기빠 그려 낼 수
있는 명명(明明)한 명명(明明)한 매미가 우네.

-박재삼, 「매미 울음에」-

고향으로 가는 길엔
하늘이 높고
흰 구름이 피어 올랐다

흰구름 그 뒤엔
남댕이 푸른 바다가
널렸고
간월도 건너, 안면도
소나무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보리 누름에
살랑이는 바람은
질은 고향 냄새를 날리고
느르실 눈 두렁엔
개구리도 울었다.

서낭당 고개 넘어
배나무꼴은 오리
갈미 장터 가는 길엔
흙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인정이 구수하기
고구마 같은데
콩서리 모닥불에 입술도 검고

고향으로 가는 길엔
피어 오른 구름처럼
마음이 부풀었다.

-성기조, 「고향으로 가는 길」-

초라한 지붕 짙어 가는 추녀 위엔 박 한 통이 쇠었다.
밤 서리 차게 내려앉는 밤, 싱싱하던 넝쿨이 사그라 붙던
밤, 지붕 밑 양주(兩主)는 밤새워 싸웠다.
박이 땀땀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 바가지 꾸어 들고 초라한 지붕, 짙어 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

-오장환, 「모촌(暮村)」-

강호(江湖) 한 꿈을 꾸지도 오래더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여 어즈버 잊었도다
첨피기옥(瞻彼淇澳)한대 녹죽(綠竹)도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 다오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清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랑 발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粥) 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앓겠노라
내 빈천(貧賤) 슬피 여겨 손을 짓는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럽게 여겨 손짓한다고 다가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단사포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평생(平生)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매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르다 할 이 뉘 있으리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겠노라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김현승, 「가을의 기도」-

마른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아도
단정하고 깨끗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 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이해인, 「살아 있는 날은」-

내 어릴 적 산골 학교 미술 시간에
나는 푸른 크레용으로 옥토끼 모양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놓고 그 안에 울긋불긋 우거진
단풍잎과 맑은 시내를 그렸었다.
산머루향이 교실까지 날아들던 오후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처녀 선생님은
가을 산꽃이 지고 해어름이 일고
그 가을내 나는 선생님의 눈물방울과 같은
단풍잎과 맑은 시냇물 속에 뛰놀았지만
돌아서서 눈물 훔치던 선생의 뒷모습과
나를 쳐다보던 충혈된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 단풍잎은 지고 세월은 가고
이제는 선생이 된 내 앞에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그림을 그린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슬픔의 푸른 크레용으로
둘러친 동강 난 내 땅 내 그리운 하늘
아이들은 평상의 얼굴로
반쪽의 땅 위에 단풍잎을 채우고
나는 충혈된 눈으로 아이들을 보았다.
눈을 뜨고 모른다며 살아온 날들이 가슴 후비는 날
가만히 손가락으로 그려보는 내 땅 내 그리운
하늘 아래 나는 이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내 손으로 그린 내 땅 안에 허름하게 시든
단풍잎 하나 떨구는 것을 거부하면서
끝내는 잊혀진 옛 선생님의 눈물마저 되살아나
동강 난 눈물방울들이 산과 바다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뒤덮었다.

-곽재구, 「20년 후의 가을」-

산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어지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

-박두진, 「도봉」-

산자락 덮고 잔들
산이겠느냐.
산그늘 지고 산들
산이겠느냐.
산이 산인들 또 어찌겠느냐.
아침마다 우짚던 산까치도 이제는
간 데 없고
저녁마다 문살 굽던 다람쥐도 지금은
온 데 없다.
길 끝나 산에 들어섰기로
그들은 또 어디 갔단 말이나.
어제는 온종일 진눈깨비 뿌리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내리는 폭설.
빈 하늘 빈 가지엔
홍시 하나 떨 뿐인데
어제는 온종일 난을 치고
오늘은 하루 종일 물소릴 들었다.
산이 산인들 또
어찌겠느냐.

-오세영, 「겨울노래」-

紫布岩乎邊希 자죽빛 바윗가에
執音乎手母牛放教遣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吾月兮不喻慚月兮伊賜等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花月兮折叱可獻乎理音如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전우노옹, 「헌화가(獻花歌)」-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
다.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
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
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
를 기르게 되었다.

-박목월, 「나무」-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믄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山茶花)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전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 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날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

-송수권, 「산문(山門)에 기대어」-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나그네」-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은하수가 흐른다.

낮은 밤에 숨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못 건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렵

이 강물 어느 지류에 조각처럼 서서
나는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리…….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감나무에서 노래하던 매미 한 마리
날아가다 갑자기 공중에서 멈추었다.
아하 거미줄이 쳐 있었구나.
추녀 끝에 숨어 있던 거미가
몸부림치는 매미를 단숨에 묶어버렸다.
양심이나 이념 같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후회나 변명도 쓸 데 없었다.
일곱 해 동안 다듬어온
매미의 아름다운 목청은
겨우 이레 만에
거미밥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 걸리면 그만이다
매미들은 노래를 멈추고
날지도 않았다.
유달리 무덤고 긴 여름이었다.

-김광규, 「매미가 없던 여름」-

나는 그 불 속에서 울부짖었다.
살려 달라고
살고 싶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불 속에서 죽지 못하고 나는 울었다.

참을 수 없는 것
무릎 꿇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나는
인정했다.
나는 파드득 날개 쳤다.

명부에 날개를 부딪치며 나를
호명하는 소리
가 들렸다. 나는
무너지겠다고
약속했다.

젓더미로 떨어지면서
젓더미 속에서
다시는 살(肉)로 태어나지 말자고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고
부서지는 질그릇으로

날개를 접으며 나는
새벽 바다를 향해

날고 싶은 아침 나라로
머리를 눌렀다.
일출을 몇 시간 앞둔 높은 창을 향해

-황지우, 「비화하는 불새」-

봄철에 좀먹은 쌀 한 말을 주고서는
가을에 온전한 쌀 두 말을 바치라네.
더욱이나 좀먹은 쌀 돈으로 물려면
온전한 쌀값으로 치러야 하느니
이익으로 남는 것은 벼슬아치 살을 찌워
고을님 한 번 하면 벼락부자 된다네.
가혹한 형벌은 민중에게 돌아가니
휘두르는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진다.
큰 가마 작은 술 모두 떼어 가 버리고
자식은 팔려 가고 소마저 끌려가네.

-정약용, 「하일대주(夏日對酒)」-

나의 소년 시절은 은(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喪輿)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江)가로 내려갔다.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몹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김기림, 「길」-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

내 마음은 호수(湖水)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玉)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門)을 닫어 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어져, 고요히
최후(最後)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 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내 마음은 낙엽(落葉)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김동명, 「내 마음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하네

-신경림, 「목계 장터」-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넒직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 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노래가 낮기는 그 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開闢)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海溢)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서정주, 「꽃밭의 독백」-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수를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실
따라서 가면
가슴 속 아우성은 절로 갈았고

처음 보는 수풀
정갈한 자갈들의
강변에 이른다.

남향 햇볕 속에
수를 놓고 앉으면

세사 번뇌(世事煩惱)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 내올 듯

머언
극락 정토(極樂淨土)가는 길도
보일 성 싶다.

-허영자, 「자수(刺繡)」-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돌으라,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라, 남북이라,
내 몸은 떠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향단아 그벋줄을 밀어라
머연 바다로
배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데미로부터,
자갈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서정주, 「추천사」-

내리막길에서는 가속이 붙는다.
페달은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마음은 놓을 수 없다.
균형은 잡아야 하고, 뜻하지 않은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바퀴살에 반짝이는 석양
이따금 찌렁찌렁 울리는 방울.

언덕길 막바지에서 해가 지고
결국은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나는 지금 편안히, 제법 상쾌한 기분으로,

관성에 몸을 실어
가을 석양의 언덕길을 굴러 내려간다.

아슬아슬한 균형도 잡으면서
한가로이 이따금 방울도 울리면서.

-김종길, 「자전거」-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달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뺏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 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文義)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고은, 「문의(文義) 마을에 가서」-

맥의 나라 이 땅에 첫눈이 날리니,
춘성에 나뭇잎이 들성해지네.
가을 깊어 마을에 술이 있는데,
나그네는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 보았네.
산이 멀어 하늘은 들에 드리웠고,
강물 아득해 대지는 허공에 붙었네.
외로운 기러기 지는 해 밖으로 날아가니,
나그네 발걸음 가는 길 머뭇거리네.

-김시습, 「도중(途中)」-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碑石)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건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김광규, 「묘비명」-

내 말씀 광언(狂言)인가 저 화상을 구경하세.
 남촌 한량(閑良)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好衣好食)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재넘어
 시체(時體)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것다.
 장장춘일(長長春日) 낮잠 자기 조석(朝夕)으로 반찬 투정
 매팔자로 무상 출입 매일 장취 게트림과
 이리 모여 노름 놀기 저리 모여 투전(鬪錢) 질에
 기생첩 치가(治家)하고 오입장이 친구로다.
 사랑에는 조방(助幫)군이 안방에는 노구(老嫗) 할미
 명조상(名祖上)을 떠세하고 세도(勢道) 구멍 기웃기웃
 염량(炎涼) 보아 진봉(進奉)하기 재업(財業)을 까블리고
 허욕(虛慾)으로 장사하기 남의 빚이 태산이라.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기
 후(厚)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薄)할 데는 후하여서 수백 냥이 헛것이라.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하니 반복소인(反覆小人) 허
 기진다.

내 몸에 이로우면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一家)는 불목(不睦)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補)하기와
 주색잡기(酒色雜技) 모두 하여 돈 주정을 무진 하네.
 부모 조상 아주 잊고 내 인사(人事)는 나중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警戒板)을 짚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先鋒)이라.

- 「우부가」 -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넛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
 썩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모쳐라 날랜 널시망정 어혈(瘀血)질 뻘하패라.

-작자미상, 사설시조-

고독은 육되지 않다
 견디는 이의 값진 영광.

겨울의 숲으로 오니
 그렇게 요조(窈窕)하던 빛깔도
 설레이던 몸짓들도
 깡그리 거두어 간 기술사(奇術師)의 모자.
 앙상한 공허만이
 먼 한천(寒天) 끝까지 잇닿아 있어
 차라리
 마음 고독한 자의 거닐기에 좋아라.

진실로 참되고 옳음이
 죽어지고 숨어야 하는 이 계절에
 나의 뜨거운 노래는
 여기 언 땅에 깊이 묻으리.

아아,나의 이름은 나의 노래.
 목숨보다 귀하고 높은 것.
 마침 비굴한 목숨은
 눈을 에이고, 땅바닥 옥에
 무쇠 연자를 돌릴지라도
 나의 노래는
 비도(非道)를 치레하기에 앓기지는 않으리라.

들어 보라.
 이 거짓의 거리에서 숨결쳐 오는
 못 구호와 빈 찬양의 헛한 울림을.
 모두가 영혼을 팔아 예복을 입고
 소리 맞춰 목청 뿜을지라도

여기 진실은 고독히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유치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 길
몸 팔러 간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 피어 돌아오리란
땀기 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분꽃이 잊힐까 밀 냄새가 잊힐까
사뭇사뭇 못 잊을 것을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을
밤이면 별빛 따라 돌아올 것을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하늘도 시름겨운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 길
몸 팔러 간다.

-김지하, 「서울길」-

4·19가 나던 해 세밑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 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낮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컷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김광규,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어느나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넉스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백석, 「고향」-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 르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靑山)
어린 때 그리워
피 - 르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간사(人間事) 그리워
피 - 르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 - 르 닐니리.

-한하운, 「보리피리」-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저무는 하늘
동짓달 서리 묻은 하늘을
아내의 신발 신고
저승으로 가는 까마귀,
까마귀는
남포동 어디선가 그만
까옥 하고 한 번만 울어 버린다
오륙도를 바라고 아이들은 돌팔매질을 한다.
저무는 바다,
돌 하나 멀리멀리
아내의 머리 위 떨어지거라.

-김춘수, 「이중섭 4」-

밤근심이 하길기에
꿈도 길 줄 알았더니
님을 보러 가는 길에
반도 못 가서 깨었고나

새벽 꿈이 하 찌르기에
근심도 짜를 줄 알았더니
근심에서 근심으로
끝간 데를 모르것다

만일 님에게도
꿈과 근심이 있거든
차라리 근심이 꿈이 되고 꿈이 근심이 되어라

-한용운, 「꿈과 근심」-

까무러치듯 외로운 날빛이
서창(西窓)에 걸리고
홍홍한 황사바람 몇 날 며칠 부는데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굳게 닫힌 하늘에
복사꽃은 또 한 번 하얗게 떨어지고
깊은 밤 별들은 새벽빛 수틀 위에 자수(刺繡)로 뜨이는데,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청천벽력에라도 못 깨어날
깊은 잠이 드셨나요
극락 왕생 별천지에 홀로 단꿈 꾸시나요
까무러치듯 캄캄하고 외로운 이 날에
순정한 마음의 바늘 끝에 뜨이는
아픈 사연 감추옵고
이 마음에 맺혀 있는 철천지 원망을
사랑으로 불꽃으로 모두 오려서
당신 오신 날 밤
길 밝히는 연등(燃燈)으로 내걸리렸더니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김종해, 「기다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節制)와 균형(均衡)의 중심에서
빛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理性)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盲目)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파리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魂)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오세영, 「그릇 1」-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니,
하늘의 도 또한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공명(功名)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고.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김시습, 「사청사우(乍晴乍雨)」-

잔물결에 정을 품고 그 근원을 생각해 보니
연못 의 잔물결은 맑고 깨끗이 흘러가고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은 조용히 고여 있다.
짧은 담벽에 의지하여 고힘(苦海)를 바라보니
욕랑(慾浪)이 하늘에 차 넘치고, 탐천(貪泉)이 세차게 일어
난다.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차니 나를 알 이 누구인가.
평생을 다 살아도 백 년이 못 되는데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낮은 벼슬을 전전하고 부귀에 늙어서도
남가(南柯)의 한 꿈이라, 황량(黃梁)이 덜 익었네.
나는 내 뜻대로 평생을 다 즐겨서
천지에 우유(優遊)하고 강산(江山)에 누우니
사시(四時)의 내 즐거움이 어느 때 없을런가.
누항(陋巷)에 안거(安居)하여 단포(簞瓢)에 시름없고
세로(世路)에 발을 끊어 명성(名聲)이 감추어져
은거행의(隱居行義) 자허(自許)하고 요순지도(堯舜之道) 즐
기니
내 몸은 속인(俗人)이나 내 마음 신선(神仙)이오
속세가 지척(咫尺)이나 지척이 천 리로다.

-이서, 「낙지가(樂志歌)」-

바람은 자도 마음은 자지 않는다
철들어 사랑이며 추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싸움은 동산 위의 뜨거운 해처럼 우리들의 속살을 태우고
마음의 배고픔이 출렁이는 강기슭에 앉아
종이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
정이 들어 이제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 위를 짓밟고 간
많고 많은 이방의 발짝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이웃에게 눈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두려움에 떠는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들과
두부 몇 모를 사고 몇 번씩 뒤돌아보며
골목을 들어서서는 계집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들의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
사랑은 가고 누구도 거슬러 오르지 않는
절망의 강기슭에 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이 땅의 어둠 위에 닳을 내린
많고 많은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곽재구, 「절망을 위하여」-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굶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이시영, 「내 마음의 고향 6 - 초설」-

이 투박한 대지에 발을 붙였어도
 흰 구름 이는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산

 언제나 숭고할 수 있는 푸른 산이
 그 푸른 산이 오늘은 무척 부러워

하늘과 땅이 비뚤하던 날 그 어둑한 날 밤부터
 저 산맥 위로는 푸른 별이 넘나들었고

골짜기에는 양떼처럼 흰 구름이 몰려오고 가고
 때로는 늙은 산 수려한 이마를 쓰다듬거니

고산 식물을 품에 안고 길러 낸다는 너그러운 산
 청초한 꽃 그늘에 자고 또 이는 구름과 구름

내 몸이 가벼이 흰 구름이 되는 날은
 강 너머 저 푸른 산 이마를 어루만지리

-신석정,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

자일을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生涯)의 중량(重量),
 확고(確固)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岩壁)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無明)의 벌레처럼 무명(無明)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암벽(岩壁)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接近)한다.
 행복(幸福)이라든가 불행(不幸)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오세영, 「등산(登山)」-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빨발 때문이었다
 빨발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빨발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문정희, 「울포의 기억」-